

“평등법 반대 서명 운동에 동참합시다!”



평등법 저지운동본부는 은혜한인교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평등법 반대서명운동에 전 미주 한인교계와 성도들의 참여를 촉구했다. ©기독일보

친동성애 법안인 평등법(H.R.5, "Equality Act")이 미 상원에 결의를 앞두고 있는 가운데, 남가주 한인 교계를 중심으로 발족된 평등법 저지운동본부(대표 한기홍 목사)는 미주 한인들의 평등법 반대 서명 운동을 독려하고 나섰다.

평등법 저지운동본부는 지난 17일 은혜한인교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평등법의 해악을 설명하고 미주 전역의 한인 교계와 성도들이 반대 서명 운동에 동참해 줄 것을 촉구했다.

한기홍 목사는 “평등법이 실행되면 우리 자녀들이 어린 시절부터 무방비적 동성애에 노출되며, 생물학적 남성이 여자 화장실, 탈의실, 샤워실을 사용할 수 있고, 성전환 수술을 비롯해 낙태 수술 등도 학부모의 동의를 구하지 않고 제공받을 수 있게 된다”며 “평등법은 동성결혼이 합법화 된 것보다 더 큰 혼란과 도덕적 타락을 가져올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기홍 목사는 또 “평등법에 따르면 교회, 기독교 학교와 단체들

지도 성소수자 직원을 의무적으로 고용해야 하고 평등법을 준수하지 않는 교회, 학교, 그리고 단체들은 인가가 취소되거나 정부 지원이 중단될 수 있다”며 “교계가 힘을 합쳐 최선을 다해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평등법안을 저지하기 위해서는 한인교계와 한인성도들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며 “평등법안이 상원에서 통과되지 않도록 이것이 악법임을 미주 한인교계와 성도들이 먼저 인식해야 하고, 서명 운동에 적극적으로 동참해야 한다”고

평등법, 성 정체성 파괴하고 도덕적 타락 가져와
미주 한인교계 및 교회, 한인사회단체 동참 필요
전국적 온라인 반대 서명 운동 참여 독려

강조했다.

온라인 반대 서명을 위해서는 <https://p2a.co/BN6BJTc> 접속 후 이름과 주소를 적은 후 보내기 버튼을 누르면 해당 지역 상원들에게 평등법 반대 의사를 전달할 수 있다.

평등법 저지운동본부는 미주 전역의 한인교회협의회와 연합해 평등법 반대 서명을 전개하고 미주 다민족 교회들과도 정보를 공유하며 반대 운동과 온라인 기도 운동을 펼칠 예정이다.

또 TVNEXT(Traditional Values for Next Generations) 대표 김태오 목사, 김사라 사모를 초청해 세미나를 LA지역에서는 오는 25일(목) 오전 10시 주님의 영광교회, OC 지역에서는 26일(금) 오전 10시 은혜한인교회에서 각각 개최할 계획이다.

평등법 저지운동본부 실행위원장 강순영 목사는 “평등법이 통과됨으로 미국이 소돔과 고모라처럼 되지 않도록 다시 한번 깨어 일어나 기도하고 반대 운동을 전개해

야 한다”며 “앞으로 이 땅에서 살아야 할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도 평등법안은 반드시 폐지되어야 할 악법”이라고 강조했다.

평등법안을 미국 역사상 최악의 법안으로 평가하고 있는 프랭크린 그레함 목사(빌리그레함 전도협회 회장) 역시 “평등법이 통과되면 기독교인과 교회에 재앙이 될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다.

한편 평등법안은 성적지향이나 성정체성에 근거해 고용 등에 있어 차별하지 말 것을 규정하고 있다. 평등법은 트럼프 행정부 시절이었던 지난 2019년 처음 하원에서 통과됐지만, 상원은 넘지 못했다. 그러나 취임 직후 트랜스젠더의 군복무를 다시 허용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하는 등 성소수자 보호를 위한 평등법 제정을 자신의 최고 입법 순위로 강조해온 조 바이든 대통령은 평등법이 상원에서 통과되자마자 서명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김동욱 기자

개척교회가 개척교회 · 한인가정에 총 1만 달러 지원

부활절을 맞아 버지니아에 있는 개척교회가 1만 달러의 기금을 마련해 펜데믹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개척교회와 한인 이웃들을 돕기로 나섰다.

워싱턴 한국일보에 따르면 버지니아 버크에 소재한 소리교회(담임 김유정 목사)는 작년 8월 미국 교회에서 시작한 작은 개척교회지만 자신들보다 더 힘든 이웃들을 위해 나눔을 실천하기로 했다.

소리교회는 14개 개척교회에 500달러씩,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100가정에 30달러의 체크를 발송할 계획이다.

‘개척교회와 이웃사랑나눔’은 설립 후 3년 미만, 장년 출석 20명 이하의 개척 교회로 정부로부터 PPP를 받지 못한 교회는 지원할 수 있다. 일반가정은 경제난으로 도움이 필요한 경우면 지원이 가능하다. 신청방법은 개척교회의 경우 이

메일(voicechurch1009@gmail.com)이나 전화 문자(571)361-2237)로 문의하면 신청양식을 받을 수 있다. 일반 가정은 간단한 사연을 바로 이메일이나 문자로 보내면 된다. 신청마감은 3월 28일까지다.

김유정 목사는 “코로나 팬데믹 가운데 유틸리티 비용조차 내지 못할 정도로 어려움을 겪는 교회들과 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한인가정에 쌀 한 포라도 전하고 싶어 이번 행사를

를 하게 됐다”며 “지역교회가 살아나야 지역사회도 건강해지는 상생이라 생각한다”고 전했다.

소리교회는 이번 나눔을 시작으로 추후 부활절, 추수감사절 연 2회 정기행사로 정착시켜 나갈 계획이다.

한편 김유정 목사는 한국에서 12년 목회 후 2009년 도미했다. 한국의 개신대학원대학교, 탈봇 신학대, 캘빈 신학대를 거쳐 고든 콘웰신학대학원에서 신학박사 과정을 밟고 있다.

김동욱 기자
문의 : voicechurch1009@gmail.com, (571)361-2237(Text)



버지니아 소리교회 김유정 목사

이제는 안심하자!
치아 고민·걱정 끝!

치아는 하나뿐이니까!
소중한 내 치아를 위한 '치과 선택 기준'은?
바른 교정, 정직한 올림픽 치과에서 속 시원히 알려드립니다.

최첨단 3D CT 진단과 컴퓨터 시스템으로 제작한 임플란트

이동희 원장

올림픽 치과 213.385.4011
OLYMPIC DENTAL CENTER
2655 W. Olympic Blvd., #206., LA, CA 90006 (Olympic+Merilo Ave, 뉴 서클 호텔 건너편)

그린카피어 리스 & 렌트

Green M. Wild IMAGE SYSTEMS
Office and Industry Technology Solutions
Lease/Rent/Sale/Repair/Toner/Maintenance
칼라복사/칼라프린트/칼라스캔/팩스/네트워킹
교회 및 자선, 비영리단체는 특별할 때만
greenmwild@gmail.com
TEL: 213 705 7778

bizhub
KONICA MINOLTA

OLYMPIC ZION AUTO

믿고 맡겨 주시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ASE

Warranty for All Work Performed

- Brake Service
- Tune-Ups
- A/C Service

*월~금 : 8AM~6PM, 토 8AM~4PM *3210 W. Olympic Blvd., LA, CA 90006
T. (323)730-0112, (323)735-3180

고난주간 특별 새벽부흥회

예수를 나를 위하여...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으므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으므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이사야 53:5)

PASSION WEEK

www.gracemi.com
2021. 3. 29(월)~4.2(금) 새벽 5:30, 4.3(토) 새벽 6:00
강사: 한기홍 담임목사 | 장소: 은혜한인교회 비전센터 본당

OC 교회연합 부활절 새벽예배
시간: 4/4(주일) 5:30am
장소: 은혜한인교회 비전 본당

주일에배 안내
1부 7:30am | 2부 9:20am | 3부 11:30am | 4부 2:00pm

대안예수교 정보의 국제총회
은혜한인교회
GRACE KOREAN CHURCH

1645 W Valencia Dr Fullerton CA 92833
Tel: 714-446-6200, Fax: 714-446-6207
www.gracemi.com 은혜기도원: Tel: 951-277-1188
11985 Indian Truck Trail, Corona, CA 92833

한기홍 담임목사 은혜의 말씀 방송 시간	우리방송 AM 1230 JSTV 미국지역 CH 668(Dishnet) TBO Play CH 25 CHTV크리스천헤럴드	오전 08:30(주일) 오전 08:00(주일) 오전 12:00, 9:00(주일) 오전 04:00(월요일) 오전 04:30(화요일) 오전 08:00(화요일) 오전 10:20(수요일) 오전 06:00(목요일)	CTS TV 미국 CH 2092(Directv) Radio Seoul AM 1650 미주복음방송 AM 1190 CTS TV 안국(금) Radio Seoul AM 1650 JSTV 미국지역 CH 668 그외 인터넷 방송 KEMUSA.org(재미한인기독교선교재단) · GKCTV SBN(Smart Broad Casting Network), KCBN(미주기독교방송국) SON Ministry(GMAN Radio)	오전 09:00(금요일) 오전 05:30(금요일) 오전 11:30(금요일) 오전 05:00(한국시간) 오전 06:30(토요일) 오전 04:00(토요일)
------------------------------------	---	---	---	---

GBC 미주복음방송 “기독교 가치관 확립, 신앙 공동체 보호할 것”

미주복음방송 개국 30주년 감사예배 드려

“미주 복음 방송은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복음 전파 사역입니다. 지난 30년간 주님의 한량없는 은혜로 방송 미디어 사역을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어두운 세상에 빛을 비추고 절망이 있는 곳에 소망을 전하는 방송이 될 것입니다.”

1991년 4월 첫 방송을 시작으로 지난 30년간 남가주 지역 교회와 교계를 섬기며, 지역사회 이민자들의 교량과 구심점 역할을 담당해온 GBC 미주복음방송(사장 이영선 목사)이 개국 30년을 맞아 감사예배를 드렸다.

이영선 사장은 개국 30주년의 의미와 기독교 방송 사역의 사명을 되새기며, 기독교 가치관과 교회 공동체를 보호하는 일에 앞장설 것을 다짐했다.

지난 11일 은혜한인교회(담임 한기홍 목사)에서 진행된 감사예배는 권영대 목사의 사회로 GBC 2대 사장이었던 박신욱 목사가 기도했으며 이은수 목사의 특별찬양에 이어 GBC 2대 이사장 박희민 목사가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 아니하노니”(롬1:15-17)라는 제목으로 설교한 후 GBC 3대 사장 송정명 목사가 축도했다.



GBC 미주복음방송 역대 사장, 이사장 및 관계자들이 30주년 감사예배를 마치고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기독교일보

박희민 목사는 “미주복음방송이 30년 동안 중단 없이 복음을 전해 온 것은 하나님의 한량없는 사랑과 은혜”라며 “정보화 시대에 담대하게 복음을 전파하며 사회를 바른 방향으로 선도하고 믿음 안에서 미디어 사명에 전력을 다하길 바란다”고 설교했다.

이어진 2부 행사는 김언정 아나운서의 사회로 GBC 설립자이자 1대 이사장 임종희 목사의 영상 격

려사와 GBC 4대 이사장 김영길 목사가 축사했다. 이어 송정미 사모가 찬양으로 개국 30주년을 축하했고, 이사장 한기홍 목사가 감사인사를, 찬양사역자 이정열씨가 찬양했다.

또 이종용 목사(코너스톤교회)를 비롯해 박경재 LA총영사와 영 김연방하원의원, 미셸 박 연방하원의원, 최석호 가수 하원의원, CBS 한용길 사장, GBC 제 1회 복음성가 경

연대회에서 대상을 수상한 가수 박정현, 배우 신애라씨가 영상으로 축하했다.

한기홍 목사는 “지난 30년 동안 미주 한인사회를 비롯해 전세계에 복음을 전파해온 GBC의 사역에 감사드리다”며 “세속적 가치관의 확산이 가속화 되는 미국에서 성도들이 바른 판단력과 분별력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기독교적 여론을 형성하고 미디어를 통한 복음

전파의 사명을 감당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미주복음방송은 임종희 목사에게 의해 설립 때, 남가주 지역 교회와 목회자들, 그리고 성도들의 눈물의 기도와 함께 성장했다. 낯선 땅에 이민 온 이민자들에게 미주복음방송에서 흘러나오는 한국어로 된 설교와 찬양은 미국에 정착할 수 있는 힘과 용기를 주기에 충분했다.

미주복음방송은 개국 30주년을 맞아 올 한 해 여러 행사를 준비하고 있다. 감사예배에 이어 오는 7월 17일(토) 저녁 7시에는 LA 월드 디즈니 콘서트 홀에서 한국 내 유명 국악인과 미국 내 유명 관현악단의 콜라보 공연으로 한인 커뮤니티의 회복과 단합을 위한 “This is Korea 콘서트”를 개최할 계획이다.

또 침체된 한인 CCM계의 부흥을 위해 5월부터 9월까지 예선 및 결선을 거쳐 10월 말경에서 11월 초순, “제 10회 복음성가 경연대회”와 “CCM 찬양제”를 남가주 지역 대형 교회에서 진행할 예정이다.

미주복음방송은 코로나로 인해 경제적으로 어려움에 직면한 커뮤니티 이웃들을 위해 ‘나눔 ON(온) 캠페인’을 작년에 이어 올 한해도 특별생방송을 포함하여 계속 진행될 예정이다.

김동욱 기자

남가주 교협 “어려운 이웃들과 ‘사랑의 쌀’ 나눠요”

4월 1일부터 10일까지 배포...목표 5천 포



왼쪽부터 총무 김영배 목사, 조병국 목사, 회계 오세원 목사, 사무국장 자스민 박 교수

남가주 기독교교회협의회(회장 조병국 목사·이하 남가주 교협)는 지난 9일 주은혜감사교회에서 ‘제 11차 사랑의 쌀 나눔’ 기자 간담회

를 갖고 교계와 남가주 각 지역교회의 협력을 요청했다.

남가주 교협의 올해 사랑의 쌀 나눔 목표는 5천 포이며, 목표 모

금액은 쌀 1포 당 10달러로 계산된 5만 달러다. 교협은 사랑의 쌀 교환권을 어려운 이웃들과 미자립 교회에 오는 4월 1일부터 10일까

지 주은혜감사교회(2120 W 8th St #360 LA CA 9005)에서 배부할 계획이며, 교환권은 가까운 마트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조병국 목사는 “우리 주변에는 도움의 손길이 절실한 이웃들이 많이 있다. 약 5만 4천명의 노숙자들이 LA에 거주하고, 이들 가운데 한인들도 3백 명에 달한다. 또 많은 서류 미비자들이 아무런 혜택도 받지 못

한 채 고스란히 어려움을 감당하고 있다”며 “어려운 시기에 사랑의 쌀 나눔을 통해 그리스도의 사랑이 전해질 바란다”고 전했다.

한편 남가주 교협은 올해 사랑의 쌀 재원 마련을 위해 남가주 지역 교회와 역대 회장단들의 후원을 당부했다. 또 남가주 각 지역 기업체들의 참여를 요청했다.

문의) 213-219-8999 오세원 목사 김동욱 기자

코엠 커뮤니티 센터
 KOAM Christian Community Outreach Center

저렴한 비용으로 도와드립니다.

- 비영리단체등록
- 특허
- 비영리 단체 세금 보고
- 주 교육국(인준) 상담해 드림

David Lee (213)422-8916, (818)523-1119



GATEWAY SEMINARY
Biblical • Missional • Global





- 학위과정 : 목회학석사(MDIV), 신학석사(MTS), 기독교교육학석사(MAEL), 선교학석사(MGE)
- 주 소 : 3210 E. Guasti Rd, Ontario, CA 91761

한영이중언어과정(KEB, Korean-English Bilingual Program)은

- 한국어와 영어로 진행되는 이중언어 과정입니다.
- 세계 최대의 개신교단인 남침례회가 후원하며 게이트웨이(구, 골든게이트)의 탁월한 커리큘럼이 활용됩니다.
- 이민교회와 더 나아가 세계를 섬기는 역량있는 기독교 지도자 양성 과정입니다.
- 원적 수업도 지원합니다.
- 북미주 최고의 학력 인증 기관인 The Association of Theological Schools(ATS)와 Western Association of Schools and Colleges(WASC)에서 학위를 인정하는 프로그램입니다.

2021년 가을학기 게이트웨이 신학대학원의 한영이중언어과정(KEB)에서 학생을 모집합니다.

■ 등록마감일 : 유학생 6월 1일, 미국거주자 8월 15일

CONTACT FOR MORE INFORMATION : 909-687-1649 EXT.1320 KEB@GS.EDU
 OR VISIT : www.gs.edu/keb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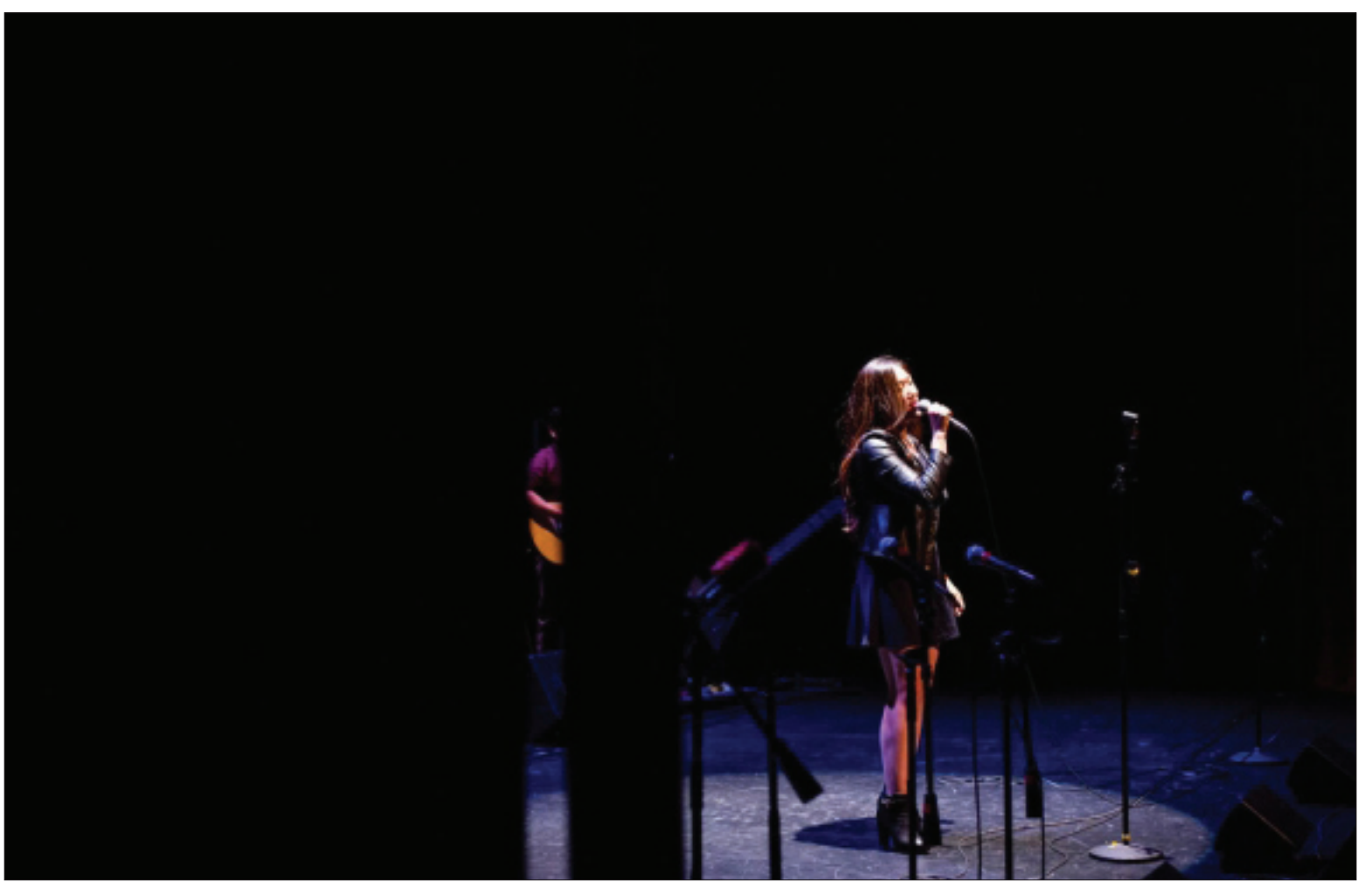
찬양 사역자 "병하"의 첫번째 디지털 싱글 "이미 날 살게하네"

“유흥의 도시 라스베가스에서 찬양으로 더 큰 사랑 전하리”

라스베가스에서 찬양 사역을 하고 있는 이병하(병하) 씨가 첫 싱글 '이미 날 살게하네'를 최근 발매했다. 병하 씨는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는 말이 있으나 지금은 모든 길이 베가스로 통한다 해도 과언이 아니라며 라스베가스를 소개했다.

병하 씨는 사막 위에 황폐한 땅에 세워진 조그마한 도시 라스베가스에 해마다 전세계의 사람들이 관광과 유흥을 즐기기 위해 방문하고 있고, 그들을 만족시키기 위해 베가스에는 전세계에서 가장 화려한 쇼와 호텔, 음식, 도박 등을 제공하고 있는 최고의 도시이지만, 죄악과 쾌락이 가장 만연한 Sin City라고 했다.

그러나 이 도시에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들이 있고 병하 씨도 그 중 한 사람이다. 만족을 위해 왔으나 참된 만족이 없는 그곳에서 찬양을 부르고 있으며 음악을 전공하지도 않았고, 화려한 경력도 없지만, 예배자의 마음으로 첫 싱글을 준비한 병하 씨를 서면으로 만나봤다.



라스베가스에서 찬양 사역을 하고 있는 이병하(병하) 씨 ©이병하 제공

-미국 라스베가스 지역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여성 찬양인도자로 활동하고 계신데요, 본인 소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찬양으로 사랑을 전하길 소망하는 라스베가스에 살고 있는 이병하입니다.”

-어떻게 라스베가스에서 찬양을 하게 되셨나요?

“2004년 미국에 처음 와 섬기던 한국 교회에서 어머니가 피아노 반주를 하셔서 함께 찬양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라스베가스에서 찬양하며 느끼는 점은요? 힘든 점도 많으실텐데요.

“사회에서 일을 하면서 오는 힘들고 세상을 살아가면서 오는 시험, 고난은 오히려 찬양을 통해 이겨내고 많이 위로 받습니다. 어둠 속에서의 한 줄기 빛이 밝은 곳에서의 빛보다 더 밝게 느껴지듯이, 도박의 도시 유흥의 도시인 라스베가스에서 부르는 찬양으로 더 큰 사랑 전할 수 있을 거란 믿음으로 찬양을 부르고 있습니다.”

-첫 싱글 '이미 날 살게하네'를 발매하셨는데요. 이 찬양 소개해주세요. 누가 만든 찬양인가요? 어떻게 이런 곡을 만들게 되셨나요?

“이실라 형제님께서 작사, 작곡하시고 원하트에서 편곡과 제작을 해주신 곡입니다. 한여름밤의 찬양 축제와 또 여러 유튜브 동영상상을 통해 마음을 어루만지는 찬양을 하시는 이실라 형제님을 알게 되었고, 하나님과 나의 굳건한 관계와 십자가의 사랑을 고백하시며 멋진 곡을 소개해 주셨는데, 제목부터 저를 사로잡았습니다. '이미'라는 이 한 단어를 통해서, 나는 십자가의 보혈이 이루어진 그 순간, 아주 오래전부터 구원을 받았고 그 순간부터 주어진 감사한 삶을 살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병하 씨가 자주 듣는 찬양은요? 추천하는 아티스트 있나요? 마음에 새기고 있는 성구가 있나요?

“간결하면서도 강한 메시지가 있는 오래된 찬송가와 복음성가를 좋아해서, 나무엔 님의 앨범을 즐겨 들었습니다. 작년에 인도에서 3개월 지냈을 때 특히나 많이 들었는데 '예수님은 누구신가'를 들으며, 다양한 신을 믿고 섬기는 나라 한 가운데서도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정확히 기억하고 전할 수 있어 감사했습니다.”

잠언 16장 9절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길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를 항상 마음에 새깁니다. 코로나 시기 어찌면 우리는 우리의 앞길조차 계획하기 힘든 상황에 있을 수 있지만, 그 와중에도 항상 나의 생각과 그 길을 인도하심을 믿습니다.”

“위에서 말했듯, 저 또한 2020년은 제 앞길을 하나 계획할 수 없었습니다. 예기치 못하게 코로나가 시작되었고 집에 돌아오지 못하고 여러 나라에서 생활을 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 가운데서도 다양한 방법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보게 하고 느끼게 하시고 전할 기회를 주셨습니다. 위기를 기회로 보여주시는 그 시간들을 생각하며, 찬양은 자리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디서든 언제든지 할 수 있음을 잊지 않으며, 더 감사하게 뜨겁게 찬양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계획은 어떻게 되나요? 더 하고 싶은 말씀 있으신가요?

조성호 기자

‘굽주림보다 더 큰 목마름’의 복음통일선교도서

빛은 그를 외면하지 않았다

Righteous Outlaw

굽주림보다 더 큰 목마름

책의 추천자들: 오대현목사(예수전도단), 주선영교수(장신대 영예교수), 이영희교수(예수대대표), 송정영목사(복음선교회), 권준목사(유일대대표), 신정민목사(복음선교회), 유관지목사(동일대대표), 김인식목사(KCC공동대표)

박상원 목사 책의 관리자

* 영의 책은 아예 연락처로 주문하실 수 있습니다. \$20/권당 + \$5 우송료

지금까지 3만 5천부가 판매된 ‘굽주림보다 더 큰 목마름’(한/영)과 수록 ‘빛은 그를 외면하지 않았다’는 복한 간부 출신의 자전적 스토리와 지파성도들의 순교종언으로 지역에서 전국으로 옮겨지는 기적같은 여정이고, 우리예언 복음통일의 완수라는 분명한 메시지의 울림이다.

* 체크오더양: GBMW 모든 기부금은 세금공제의 혜택을 받는 세금영수증을 발행해 드립니다.

기드온북점선 GBMW 16825-48th Ave. W. #345 Lynnwood, WA 98037 T.(425)775-7477 gbmwusa@gideonbrothers.org www.gideonbrothers.org

• 이번에는 무슨 차로 할까? • 요즘 스페셜이 있는 차가 무얼까? • 자동차 구입할까? • 리스 할까? • 내가 용자가 될까? • 안녕 하세요? 18년의 경험을 기반으로 고객님들의 고민 해결을 한 방에 날려 드리겠습니다. 전화 주세요! 도와 드리겠습니다.

천천히 다 돌려받으세요

당신의 마지막 카드

18년 경력의 자동차 판매 전문가, 찰리 정

푸엔테힐스 현대 HYUNDAI

Puente Hills Hyundai

찰리 정 (FLEET MANAGER) | 213-276-8959 | email: usajyk@gmail.com



AZUSA PACIFIC UNIVERSITY

Azusa Pacific Seminary

Transform the World with Christ

LA · 오렌지 캠퍼스

ONLINE COMING SOON

아주사 퍼시픽 신학대학원

한국어 프로그램

- 목회학 (MAPS)
- 목회학 석사 (M.Div)
- 목회학 박사 (D.Min)

Phone: (626) 857-2200 Email: koreanprogram@apu.edu www.apu.edu/seminary/korean-program

✉ **선교부흥을 회복하라 #198**

■ 강태광목사의 인문학 강의

♡ **성기고 나누는 월드쉐어 USA**

“연합의 시기 - 다민족이 한 팀이 되어 열방을 가다(2)”

팬데믹 사태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선교는 세계 각지에서 여전히 진행되고 있다. 미주 안에서도 지난 한 해 각 지역에서 선교 훈련은 이루어졌고(중 동영상 훈련으로) 대면 훈련 시기보다도 더 많은 훈련자들을 배출했다. 필자가 섬기는 인터콥 선교회의 다민족 청년들의 사역을 소개한다.



이상훈 목사
멕시코장로회신학대학장

미국과 캐나다의 북미 지역의 45개 지부 안에서 비전스쿨과 단기선교(F.O.), 선교캠프 등에 스템으로 섬기는 청년그룹들(YG라고 칭함)만 해도 천명이 넘는다. 그 YG는 다민족으로 이루어져 있다. 리더십 안에도 이미 다민족이다. 미주 전체의 선교회 리더십은 이미 다민족 목사들을 포함하여 이젠 한국 선교단체가 아니라 글로벌 선교회로 성장하였다. YG에서 대학생 선교사(S.M.), Youth(청소년), Kids(유초등부) 등을 이끄는 팀장들을 임명하고 파송한다.

이렇게 폭넓은 인적 선교자원을 갖추고 있는 선교단체는 거의 없을 것이다. 지난해 팬데믹 가운데서도 청년들을 중심으로 한 인터콥 선교회는 비전스쿨을 중동 영상 네트워크로 9주 코스를 2회씩 전 미주 45개 지역에서 치러내었다. 그리고 2주 혹은 3주간의 단기선교 팀이 입국이 잠시만이라도 허용되는 중동 이슬람 국가에 200명이 넘는 인원이 들어가 영혼들을 만나 복음을 전하고 돌아왔다. 물론 그 팀들이 돌아와 2주간 자가격리까지 약 한 달간의 시간적, 물질적 헌신을 한 것이다. 알아달라 생색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세계선교는 어떤 것도 가로막을 수 없는, 그리스도인에게 팬데믹도 넘어서야 할 지상 대명령 사역인 것을 말하고자 한다.

그렇다. 필자도 팬데믹 한 복판에 있던 2020년 6월에 멕시코 선교사로 나갔다. 필자의 자녀들도 레바논 유스팀을 이끌고, 또 터키에 키즈팀을 인도하여 단기선교를 다녀왔다. 그들을 파송할 때 우리 선교회는 꼭 파송예배를 드리면서 모두가 깊은 기도로 그들을 축복한다. 각 나라들로 흩어져 들어가는 그들의 모습을 보는데 대부분 각 팀마다 다민족이다. 그렇게 다른 민족들의 팀원들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열

방의 복음화 곧 예배가 없는 곳에 예배를, 기도가 없는 곳에 기도를, 교회가 없는 곳에 교회를 위하여 가는 것이다. 이렇게 후방의 선교팀들이 선교 현지를 밟으니 현장에 있는 장기 선교사들도 그들을 인도하며 멈추지 않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 전진할 수밖에 없다. 현지 선교사들의 현장 선교 편지도 은혜중에 은혜다.

팬데믹인데 어떻게 가정에서 할 수 있냐고? 어떻게 중동 나라 입국이 가능하냐고? 사람들이 싫어할 텐데 굳이 그렇게 무리하면서 가야 할 때냐고? 적극적 선교를 비판하고 폄하하는 자들도 있다. 그러나 곰곰이 생각해 보라. 팬데믹이 아니라도 그들은 다른 명분으로 하나님의 선교를 반대한다. 기독교 2000년 역사 속에 항상 그런 교회 내부 반대자들과 기독교 비판자들이 없었던 때가 있었을까? 하나님의 교회와 세계 선교는 그런 역경을 뚫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세우는 일꾼들에 의해 이어져 왔다.

필자가 가르치는 학생중에 한 학생이 “선교사님! 제가 어떻게 하여야 선교사가 될 수 있습니까?” 물었다. “먼저 열방의 나라를 품어라. 그리고 기도부터 시작하라. 하나님의 계획을 저에게 비추어 주세요. 기도해라. 반드시 하나님이 너의 길을 여실 것이다.” 필자는 이렇게 대답했다.

300년 전 스페인 사람들은 금을 찾아 대서양을 건너 남미로 왔다. 그 결과 남미 전역이 브라질만 제외하곤 모두 스페인어를 사용한다. 이젠 그 스페인어를 받았던 남미의 청년들이 스페인어를 가지고 중동과 이슬람권의 나라들로 복음을 들고 갈 것이다. 그것이 필자의 꿈이다. 이미 우리 선교회 안에는 멕시코계 미국인 청년들이 리더십을 갖추고 있다. 그들이 지금 잠자는 멕시코 개신교회의 문들을 두드리고 있다.

인문학으로 읽은 바울의 생애 ⑨ “바보”

안디옥에서 출발한 바울과 바나바 선교팀은 실루기아 항구에서 배를 타고 구브로(Cyprus:키프로스, 혹은 사이프러스)로 이동합니다. 처음 만난 곳이 ‘살라미(Salamis)’였습니다. 살라미 여러 회당에서 복음을 증거 했던 선교팀은 섬을 가로질러 넘어가 바보에서 복음을 전합니다.



강태광 목사
월드쉐어 USA

바보는 구브로 섬 서쪽 끝에 있는 살라미에서 약 160km 거리입니다. 바보는 오랫동안 구브로 섬의 수도였으며, A.D.4세기까지 무역과 경제의 중심지였습니다. 바울의 선교 당시 바보에 로마 식민지 본부가 있었습니다. 바보는 신바보와 구바보로 나뉩니다. 구(舊) 바보(old city)는 오늘날의 신(新) 바보(New Paphos city)에서 동쪽으로 16km 떨어져 있습니다.

바보는 그리스 신화에서 비너스 즉 아프로디테(Aphrodite)여신의 출생지로 알려집니다. 고대 그리스 최대의 서사시인 호메로스는 “황금을 머리에 쓴 아름답고 숭고한 여신 아프로디테에게 노래를 바친다.”고 했습니다. 아프로디테는 사랑(Love), 미(Beauty) 그리고 풍요(Fertility)를 상징하는 여신입니다. 그리스신화에서는 아프로디테는 구브로의 바보 근처의 바닷가 물거품 속에서 태어났다고 합니다.

구브로는 유명한 구리 산지입니다. 그래서 키프로스는 이름도 구리를 뜻하는 히브리어 ‘키프리오스’에서 나왔습니다. 구브로의 면적은 제주도의 5배 정도인데 지중해 섬들 중에 세 번째로 큰 섬입니다. 구브로에는 유대인이 많았습니다. 특히 로마가 지배했던 주후1세기에는 상당한 유대인들이 살았습니다. 역사가 요세푸스에 의하면 구브로에 성공한 유대인이 많았습니다. 마가의 어머니 마리아와 바나바도 구브로 출신의 부자였습니다.

구브로(Cyprus)는 기원전 333년 알렉산더 대왕이 점령했고 알렉산더 대왕 사후에는 이집트 프톨레마이오스 왕조가 통치했습니다. 그리고 기원전 58년에 로마에 합병되었고, 기원전 37년에 로

마 원로원의 속주가 되었습니다. 기원전 15년경 아우구스투스 황제시절 바보 지역에 큰 지진으로 도시 전체가 파괴되었는데 곧 로마 정부의 재정지원으로 재건되었습니다.

구브로에는 옛날 로마 시대의 성(城)이 아직 남아 있고, 성 뒤로는 왕의 무덤 등 고대 유적이 발굴되었습니다. 로마 시대 생활상을 담은 모자이크들이 선명하게 남아있습니다. 4세기 초에 거대한 비잔틴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그런데 AD 7세기에 이슬람 세력이 침략해서 교회를 비롯해 많은 유적들을 파괴했습니다. 하지만 지금도 비잔틴 교회 터가 남아있고, 꽃무늬 모자이크들이 상당히 많이 남아 있습니다.

구브로(키프로스)는 역사 속에서 부침이 많았습니다. 647년과 802년에 이슬람군에게 점령당했습니다. 1191-1571년에는 십자군들과 베네치아인들이 점령해 라틴 문화와 라틴 교회를 따르도록 강요당하기도 했습니다. 1571-1878년까지 오스만 투르크가 지배를 했고, 1878-1960년에는 영국의 식민지가 되기도 했습니다. 1960년에 독립했지만 현재 남과 북으로 분단되었습니다. 북쪽은 터키가 점령했고 남쪽은 그리스로부터 독립했습니다.

바보는 BC 58년경 로마가 지배한 후부터 구브로의 수도가 되었고, 로마 총독 주재지였습니다. 바울 때는 서기오 바울(Sergius Paulus)이 로마의 총독으로 주재했습니다. 발굴된 비석에 의하면 41년부터 54년까지 ‘퀸투스(Quintus) 서기오 바울’이라는 총독이 바보에 주재했다고 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 서기오 바울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이를 방해하려던 바예수(Bar-Jesus)라 하는 유대인 마술사 엘루마(Elymas)는 바울에게 꾸중과 훈계를 받습니다. “네가 맹인이 되어 얼마 동안 해를 보지 못하리라.”는 바울의 저주에 따라 엘루마는 장님이 됩니다. 이 일을 통해 큰 충격을 받은 총독 서기오 바울은 바울의 전도의 메시지를 받아들입니다.

결국, 구브로 섬의 로마 총독 서기오 바울이 복음을 받아들여지게 되었고, 동시에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믿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바보에서 행한 영적 능력과 이적 사건은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사도행전은 이 사건을 계기로 바울의 이름을 사 용합니다. 즉 ‘사울’이 공식적으로 ‘바울’로 바뀌어 지는 장면입니다. 아울러 여기서 선교팀 리더가 바울입니다. 이름순서가 바나바 바울에서 바울 바나바로 전환됩니다.

바보에 전해지는 전설 중에 하나가 바울이 40에 하나 감한 태장을 맞았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바보에서 태장을 맞고 배를 타고 오늘날 터키 남부에 있는 버가로 이동했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채찍을 맞은 것을 기념하는 바울채찍 교회가 바보항구에서 가까운 곳에 있습니다. 이 교회는 바울이 채찍에 맞은 것을 기념하기 위해 세운 교회입니다.

이 바울채찍교회 옆에 ‘성 바울의 기둥’이란 뜻말이 그리스어와 영어로 새겨진 대리석 기둥이 있습니다. 바울이 40에 하나 감한 때를 맞기 위해 묶였던 기둥이라고 알려집니다. 고린도 후서 11장 24절에 바울이 40에 하나 감한 때를 다섯 번 맞았다고 기록하고 있으나 그 때를 맞은 상황과 장소에 관한 언급은 없습니다. 바보에 ‘바울채찍교회’와 바울이 묶였다는 ‘성 바울의 기둥’을 통해 바보가 그 중의 한곳임을 알 수 있습니다. 교회 오른쪽으로 얼마 되지 않는 곳에 카타콤이 있습니다. 비록 작은 규모이지만은 하나 바보에 있었던 신앙의 박해와 수난의 역사를 볼 수 있습니다.

기독교일보

편집고문 : 박희민, 장재호, 박기호, 방지각, 김중언, 고승희, 민중기, 정우성, 김혜성
발행인 : 이인규 고문변호사 : 정찬용
지 사 : 로스앤젤레스, 뉴욕, 샌프란시스코, 워싱턴DC, 시카고, 애틀랜타, 시애틀
대표전화 : (213) 739 - 0403 / E-mail : chdailya@gmail.com
주소 : 3008 Wilshire Blvd. #200, Los Angeles, CA 90010

후원
Pay to the Order of
Christianity Daily



LA 노숙자지원, 아이티 쓰레기마을 아동지원, 수리남 참전용사 자녀돕기에 여러분의 도움의 손길을 기다립니다.



당신의 일부를 나누면 한 아이 인생의 전부가 바뀝니다.

여러분의 작은 나눔이 질병과 가난에 허덕이는 어린이들에게 희망의 빛이 됩니다.

작은 나눔 (30불, 50불)으로 희망을 나누는 행복으로 초대합니다.



World Share USA

3123 W. 8th St. #206 LA, CA 90005 후원 문의 : 강태광 목사 T.(323)578-7933

교회성장학과 성공적인 목회론에의 반성(2)

교회의 부흥, 교회성장론과 목회성공에의 재인식(4)

교회성장학은 개혁주의 신학이 그렇게 비판해 온 로마 가톨릭 교회의 “행위 중심의 교회” 이론과 큰 차이가 나지 않는다. 시장 경제가 주도하고 있는 자본주의 구조 속에서는 목회 성공은 물질적으로 화려한 포장을 하고 있다. 그러한 사회환경에서는 황금만능주의를 벗어날 길이 없다. 전 국민을 각 지역 교회에 출석하게 했던 로마 가톨릭 교회야 말로, 목회성장학으로 볼 때에, 가장 성공한 사례라고 할 수 있을까?

현대교회는 엄청난 변화의 소용돌이 속에 처해있다. 새로운 교회성장을 염원하는 입장에서 여러 가지 방안들을 모색하려는 의도는 이해할 수 있다. 교회를 살려내려는 동기에 대해서도 충분히 공감한다. 현대인들이 살아가는 방식과 양식은 급속히 변화하였고, 한국 사회는 짧은 기간 안에 수백 여년 간 지탱해 온 모든 요소들을 잃어버렸다. 물질만능주의가 세상을 바꿔놓았다. 영국을 비롯해서 서구 유럽에서는 19세기에 산업혁명으로 기계화가 이뤄지면서, 세계 산업구조가 농업중심에서 상업과 대량 생산방식으로 완전히 바뀌었다.

노동집약적인 산업들이 등장하면서, 도시화가 확산되었다. 뉴욕 등 세계 주요 도시들은 주식시장과 자본금을 놓고서 겨러하는 새로운 형태의 대주주들을 양산했다. 동시에 자본을 소유한 자들은 합법적으로 시장 경제의 가속화와 더불어서 천문학적인 물자를 소비하게 하여 엄청난 부를 축적하게 했다. 세계적으로 교역량이 증가하였고, 모든 생산품은 그 수량과 질에 있어서 무한 경쟁 상태로 내몰렸다. 자동차나 비행기나 기차와 선박 등 전혀 상상할 수 없는 기술문명의 진보가 진행되면서, 하나님의 은혜와 성경의 가르침은 뒷전으로 밀려나고 말았다. 산업화와 근대화를 추구하는 사회의 변화는 제3 세계 개발도상국에서 더욱더 급속하게 진행되고 있다. 농업사회에서 도시 문화로 진입한 후에, 도시 교회들의 주도가 나타났다.

교회를 병들게 만든 것은 물질만능주의만이 아니다. 전 세계 곳곳에서는 교회와 대결하는 수많은 종교가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다. 기독교의 유일성에 반기를 드는 종교 다원주의(pluralism)는 기독교 복음의 절대성을 훼손하고 말았다. 종교 간에 평화를 도모하는 대화모임에서는 종교 상대주의가 자리를 잡았다. 모든 종교는 동일하다는 생각이 새로운 시대적 풍조로 자리 잡아가

고 있다. 교회 안에서도 각 교단이나 교파를 벗어나서 초교파주의 현상들이 늘어났다. 안타깝게도 예배 중에 선포되는 설교 시간도 짧아졌다. 말씀의 권위는 점차 힘을 잃어가고 있으며, 쉽게 교회를 옮겨 다니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 자신이 회원으로 속한 하나의 지역 교회에 헌신하고 봉사하려는 성도들이 줄어들어 버렸다.

지금 한국에서는 마치 교회가 코로나 바이러스의 확산기지처럼 혐오 기관이 되고 말았다. 수많은 교회가 사람들의 생활 공간에 함께 자리하고 있지만, 과히 중요한 곳으로 취급되지 않고 있다. 과거에는 교회에서 정한 예배와 각종 기도모임에 참석하는 것을 생활의 중심에 두고 살아갔다. 필자의 부모님 세대들은 매일같이 새벽기도회에 참석하는 것을 필수적인 삶의 의무로 간주했었고, 교회가 제일 우선이요 최고의 모임이었다. 그러나 일상이 바빠진 현대인들은 주일 날 오전 예배 시간마저도 출석하지 않은 채, 자신들이 하고 싶은 일에 집중하고 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확산하면서, 교회에 출석하는 집회가 무지한 자들이 비과학적인 맹신에 매달리는 것으로 매도되고 있다. 이처럼, 교회 주변에서의 인식의 변화가 엄청나다.

현대인들의 문화에 따라서, 가치관이 엄청나게 변했다. 과거와 달리, 예배 요소와 순서들, 찬양 시간의 음악에서도 큰 변화가 있었다. 방법을 개발해서 바꾸는 것만으로는 과연 올바른 교회가 유지될 수 있을지 장담할 수도 없다. 이제는 중요한 기관이자 선진적인 제도를 갖춘 교회가 성도들에게 주었던 혜택들을 잃어버린지 오래되었고, 존재 의미가 사라지고 말았다. 이런 현상들이 현대 목회자들의 설교와 가르침에도 큰 영향을 끼쳤다. 이런 모든 것들이 현대 교회의 쇠퇴에 작용하고 있는 것만은 사실이다.

이러한 시대의 흐름 속에서, 현대인들에게 맞는 교회 성장론이 나온 것이라고 본다. 성공적인 목회론, 혹은 목회 성장학이라는 “과목”을 설정하자, 수많은 목회자들이 모여들었다. 대형교회마다 교회성장학 세미나를 열었고, 목회성공의 비결들을 제공하는 강좌들이 넘쳐났었다. 하지만, 대부분의 교회성장 세미나는 양적인 확장과 교세팽창으로 치중하고 말았다. 더구나 이들 강좌들에서 제공하는 “세속화된 방법론”들이 소개되면서, 교회론의 변질이 심각하게 일어났다.

한국에서는 대기업을 운영하는

재벌들이 유명한 가문으로 등장했다. 현대인들은 문화적 가치들을 돈과 권세와 명예와 인기 등으로 평가하고 있다. 이처럼 기독교계에서도, 심지어 교회 안에서도 대형교회가 마치 재벌그룹처럼 영향력을 발휘하였다. 현대 사회에서 성공한 사람이란 돈이 많거나, 마스크에서 널리 알려진 유명인사가 되거나, 혹은 인기가 높은 사람을 의미한다. 교회 성장의 환상을 좇아가는 목회자들도 역시 이러한 부류의 한 가지에 매달리게 되었다. 성공한 사람들이 모이는 서울 강남지역의 교회들은 마치 “탑 브랜드 아파트”처럼 알려지게 되었다.

목회성공의 신드롬이 낳은 폐해는 세속화 현상에 불과했다. 한국에서 성공한 사람에 대해서 언급할 때에 유명한 일류 학교를 졸업하고 거대한 재벌 그룹 회사에서 높은 연봉을 받는 고위 직책을 가진 사람이라고 말한다. 이렇듯이, 성공한 목회자들의 행태가 별반 다르지 않았다. 서울 강남의 어떤 대형교회 목회자는 영국제 최고급 자동차를 타고 다닌다는 것을 자랑하였다. 이러한 것이 과연 목회자로서 성공한 것이라고 말할 것인가?

하나님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자들에게 그저 “나에게 오라”고 부르시지 않았던가? 하나님께서는 주일 오전 예배 시간에 몇 명이나 출석하는 곳에 다니느냐고 묻지는 않으신다. 교회의 본질에 대한 진실한 성경의 교훈은 제쳐두고, 목회성공은 무엇을 내세우고 있는가? 교회 성장학이 빛낸 왜곡된 인식은 세속화된 가치평가로 목회자와 교회를 미혹하고 말았다. 그로 인해서 겉으로 보여주지 식으로 진행되는 프로그램들과 사역들이 나열되었다. 외적으로 포장하기를 즐겨하는 교회론의 변질이 초래된 것이다. 현대교회는 찬송을 회중들의 다 함께 노래 부르기로 바꿨다.

교회의 찬양은 하나님께 올리는 곡조 붙은 기도가 아니라, 현대 음악적인 유희와 다를 바 없게 사람들의 심리적 위호에만 치우치고 말았다. 찬양은 더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교회에 나오도록 유도하는 수단이다. 우리는 복음송가나 현대 찬송에 반대하지는 않는다. 다만, 찬양의 초점이 하나님의 영광을 높여드리고, 존경과 경배를 올리는 용도로 사용되어지고 있는냐를 묻는 것이다.

교회의 목적과 본질에 대해서 성경이 증거하는 것은 무엇인가를 진지하게 되돌아 보아야 한다. 교회는

정제되어서는 안되지만, 역동적으로 움직이게 하려는 것이 궁극적인 목적이 되어서도 안된다. 교회는 영원한 하나님을 세상에 보여주는 곳이 아니라, 이 세상에 오신 그리스도의 진리를 제시하는 곳이다. 유대인의 문화와 전통이라는 통로를 통해서 주후 1세기에 인간의 몸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세우시고 어느 곳에서나 어느 종족이라도 교회로 받아들였다. 교회란 인간의 문화 속에 하늘의 성품과 인격이 담겨지게 된 것이다. 교회는 모두 다 항상 그리스도라는 분명한 속성들과 특성들을 공유한다.

한국교회에서나 해외 교회에서나, 우리는 슬프게도 수많은 목회성장의 어두운 면들을 목격하고 있다. 교회의 지침이 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나게 되면, 결국 사람의 허망한 욕심에 빠지게 되며, 죄가 장성하게 되고, 마침내 사망에 이르고 마는 것이다. 한국교회는 급속한 기업의 성장과 국력의 신장에 힘입어서 양적으로 초고속 성장을 거듭했다. 서울에는 초대형 교회들이 속속 들어섰다. 마치 대기업으로 자리잡은 몇몇 재벌 그룹들처럼, 초대형 교회들은 교세 확장을 도모했다. 여의도의 모 교회는 은사운동으로 각광을 받았고, 강남 신사동의 모 감리교회는 적극적 사고방식으로 유도했다. 이런 교회들을 모아서 “한국의 10대 교회”라는 책이 나왔는데, 지금은 어떻게 평가를 받을지 궁금하다.

또 다른 한편으로는 “한국의 10대 교회”가 잘못된 용어이듯이, 지난 세대에는 “복음주의 4인방”이라는 이름의 목회자들이 기독교 언론의 주목을 받았었다. 여기에 거명된 네 분 모두 다 특별한 헌신과 지도력을 발휘했던 분들이었고, 존경을 받는 분들이었다. 하지만, “4인방”이라는 특정한 중심인물을 그룹화하는 것은 중국에서 공산주의 정치가들을 특정 계급으로 추켜세우고자 부르는 호칭이 아니었던가? 서울에서 대형교회를 개척하였고, 공헌을 하신 분들이야 아무런 잘못이 없을 것이다. 그렇게 부르는 언론이나, 교계의 행태가 한심할 따름이다. “4인방”이라니 도무지 기독교의 정신과는 상관이 없는 말이며, 전혀 성경적인 용어가 아니다. 어째서 이런 개념이 널리 퍼져나갔던지, 이해할 수 없다. 기독교 언론이나 단체들이 목회 일선에서 헌신하는 모든 헌신자들을 존중하려고 한다면, 결코 사용해서는 안될 용어였다. 지금도 “차세대 4인방”을 또 다시 만들

어내려고 해서는 안된다. 이리다 보니, 지극히 세속적인 교회성장론이 한국교회에 유행하게 되었고, 결국 내실에 치중하지 못한 채 대규모 예배당 채우기에 바쁜 나날들이었다. 치밀하게 성도들의 영적 성장을 지도하지 못하였고, 부실한 기독교인들을 양산하게 되었다.

수없이 많은 혼란을 가증시킨 이단들이 성도들에게 미래의 성공과 건강, 출세와 인기 등을 마치 마약과 같이 퍼트렸고, 그 폐해가 지금도 남아있다. 가짜 복음과 불건전한 사이버 유사 기독교 사상들이 퍼져나가서 정통교회가 치명상을 입었는데, 한국 대형교회들은 효과적으로 대처하지 못하였다. 목회자들은 모두 다 대형교회를 목표의 성과물로 설정하였고, 그런 성공한 사업가 이미지를 갖춘 대형교회 목회자들이 전국 규모의 교회 연합단체에서 대표회장을 맡도록 해야한다는 식으로 호도했다. 대형교회 목회자가 마치 큰 바위 얼굴에 나오는 위대한 인물이라고 착각하게 되었다. 이런 안타까운 상황들이 펼쳐지던 동안에, 민주주의의 희생자들이 늘어났으며, 분단 조국의 양극화가 촉진되었다. 이처럼 지난 세대 초고속으로 성장한 한국교회는 허술한 부분들이 너무 많았다.

우리는 인격적 목회와 선교적인 명령수행, 전도에 강조를 두는 것을 결코 반대하지 않는다. 그러나 성경에 담긴 하나님의 말씀과 그분의 권위에 순종하는 입장으로 수행해야만 한다. 복음이 전파되어서 회개를 통한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형성되고, 총체적인 인격의 변화가 수반되어야만 한다. 그냥 교회 안에 사람들만 많이 모이도록 해서는 결코 부흥이라고 말할 수 없으며, 참된 교회라고도 할 수 없는 것이다.



김재성 박사
국제신학대학원대학교
부총장

2021 미주기독교 대학박람회

IRUS
(International Reformed University & Seminary)

- ABHE 정회원
- 대한예수교장로회합동총회 (총회장 김홍준 목사)
- WKPC(세계한인예수교장로회) 인준 신학교
- I-20 발행 및 각종장학제도
- ESL, 학사, 석사, 박사과정

125 S. Vermont Ave., Los Angeles, CA 90004
Tel: (213)381-0081, Fax: (213)381-0010
www.irus.edu, office@irus.edu

미성대학교
America Evangelical University

- ABHE 정회원, ATS 준회원
- 기독교회(BA), 목회학사(M.Div), 상담학사, 선교학사, ESL, TESOL
- 연방정부 승인 SEVIS I-20 자체 발행
- 안수 후 미주 및 한국에서 사역 가능
- 목회학사 과정 신설
- 입학상담: 조경호 박사 716(26)227-3454

미래를 책임지는 미성대학교
총장: 이상훈 박사, 이사장: 조종관 박사
1818 S. Western Ave., #409, Los Angeles, CA 90006
Tel (323)643-0301, Fax: (323)643-0302
www.aeu.edu/info@aeu.edu, aeu@master@gmail.com

MIDWESTERN
BAPTIST THEOLOGICAL SEMINARY

미드웨스턴 침례신학대학원 한국부
- 남침례교 6대 신학교(HLC & ATS 인가)
- 100% 한국어
- I-20 발급
- 저렴한 등록금과 장학 혜택

성경사역학철학박사
목회학석사
교육목회학박사
목회학박사

5001 North Oak Trafficway., Kansas City, MO 64118
Tel: (816)414-3754 Email: ks@mbts.edu

미주장로회신학대학교

해외한인장로회 총회 직영신학원
(한국 장로회 통합측 목사교사, 안수가능)
I-20발행 및 각종 장학제도

15605 Carmenta Rd., Santa Fe Springs, CA 90670
Tel, 562-926-1023, 4691 Fax, 562-926-1025
www.pts.edu

월드미션대학교
World Mission University

- ABHE, ATS 정회원
- 미국 주류 신학교 학점 인정 및 편입학 가능
- 온캠퍼스의 온라인 프로그램
- 신학, 상담학, 음악학, 간호학, 글로벌리더십 학위과정
- 유아교육, 가정사역, 비영리단체사역 수료과정

500 Shatto Pl., Los Angeles, CA 90020
Tel: (213)388-1000 Fax: (213)385-2332
www.wmu.edu admissions@wmu.edu

복음대학교
Evangelical University

- TRACS 정회원 인준
- 특 전: Sevis I-20 발행 / 선교사 장학금 및 각종 장학제도
- 성경학 학사 (B.A. in Biblical Studies)
- 목회학 석사 (Master of Divinity)
- 종교학 석사 (Master of Art in Religion)
- 목회학 박사 (Doctor of Ministry)

2660 W. Woodland Dr. #200, Anaheim, CA 92801
Tel: (714)527-0691(0692) Fax: (714)527-0693
www.evangelia.edu info@evangelia.edu

GATEWAY SEMINARY
Biblical • Missional • Global

게이트웨이신학대학원에서
한영 이중언어과정 학생을 모집합니다.
학위과정 - 목회학석사(M.Div.) & 신학석사 (M.T.S)
상담문의: 714-256-1311 EXT.24 / KEB@GGTS.EDU
WWW.GGTS.EDU / KEB

그레이스 미션 대학교
Grace Mission University
하나님의 선교를 이루는 대학

신학사(BA), 석사: 기독교 교육학(MA CE), 선교학(M.A.ICS), 목회학(M.Div), 선교학 박사 (D.Miss)과정
연방정부학자금 보조, I-20, 온라인 강의,
한국어 및 영어 트랙, LA Teaching Site 운영
1645 W. Valencia Dr., Fullerton, CA 92833
Tel: (714)525-0088(대표), 515-5885(입학상담)
이메일: admissions@gm.edu www.gm.edu

Azusa Pacific Seminary
Transform the World with Christ

LA: 온라인 캠퍼스 MDIV, M.A., DMN,
아주사 퍼시픽 신학대학원
입학문의 ☎ (626)857-2200

코헨대학교&신학대학원

With the world!
To the world!

17002 S. Prairie Ave., Torrance, CA 90504
Tel. 424-257-8176 / Fax, 424-257-8136
www.cohenuniversity.ac

FULLER THEOLOGICAL SEMINARY

플러신학교 선교대학원 한국학부

135 N. Oakland Ave., Pasadena, CA 91182
Tel. 626-584-5574 http://korean.fuller.edu

문서선교에 앞장서는 기독교일보
광고 및 후원 문의

Tel: (213)739-0403
E-mail: chdailya@gmail.com

플러신학교 전 총장 “선거 다시 치른다면 바이든 공개 지지 안해”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을 지지했던 친생명 복음주의 학자가 신임 정부에 대한 실망을 드러내면서 “오늘 2020년 대선을 치른다면 그를 다시 선택하겠지만, 공개 지지하지는 않겠다”라고 발언했다.

플러신학교 명예총장인 리처드 J. 마우 박사는 최근 미국 크리스천포스트와의 인터뷰에서 “바이든을 위한 친생명 복음주의자”들은 지난해 10월 대선을 한달 앞두고 바이든 후보에 대한 지지 성명을 발표할 때, 그가 하이드 수정안에 대한 입장을 바꿔왔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라고 말했다.

이 단체는 최근 ‘낙태 단체에 세금을 이용한 자금 지원을 금지하’ 하이드 수정안이 포함되지 않은 코로나19 구제안을 지지하자, 이를 비판하는 성명을 발표하기도 했다.

마우 박사는 “당시 캠페인 관계자들, 현재 행정부를 돕고 있는 관리들과 대화를 나누었다. 우리는 백악관이 천주교인 및 친생명 복음주의자들과 진지한 대화에 나설 것이라는 분명한 이해 속에 지지를 표명하기로 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이후 우리가 이러한 대화를 나눈 적이 없다는 사실”이라고 했다.

그는 최근 바이든 행정부의 한 관리에게서 연락을 받았다는 사실을 전하며 “곧 백악관 내 신앙 관계자들과 회의를 할 예정”이라고 했다.

“만약 2020년 대선이 아직 다가오고 있고, 바이든이 하이드 수정안을 제외한 코로나 구제안을 지지할 것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다 해도, 여전히 바이든에게 투표하고 그를 지지하는 성명을 발표하겠느냐”는 질문에 마우 박사는 “그를 뽑겠지

만, 공적인 지지는 하지 않겠다”며 “낙태에 대한 대통령의 입장은 동의하지 않지만, 지구 온난화 및 이민 문제에 대해서는 같은 입장”이라고 밝혔다.

마우 박사는 “바이든에 대한 지지와 그에 따른 배신감 등으로 우파 진영에게서 분노에 찬 메시지를 많이 받았으며, 일부는 내가 순진하다고 했다”면서 “그러나 부모나 조부모가 트럼프를 지지하고 옹호하는 방식에 기뻐하지 않는 많은 젊은 복음주의자들을 안심시킬 필요가 있었다”고 했다.

그는 “우리는 친생명적인 권리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동시에 지구 온난화, 국경의 난민 아이들이 부모와 분리되는 문제 등 더 광범위한 이슈들을 우려하는 것도 괜찮다고 말했다. 이러한 접근



리처드 마우 총장. ©플러신학교

마우 박사는 그러나 바이든 대통령과 민주당이 친생명 지지자들을 수용하기 위한 폭 넓은 진영을 구축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비관적인 입장을 보였다. 또 다른 주요 입법인 평등법에 대해서도 우려를 드러냈다.

마우 박사는 “이 법안은 성교육에 대한 전통적인 입장을 유지하고 있는 기독교 단체들이 연방 교부금, 학생들을 위한 연방 대출 등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보호할 권리를 위태롭게 하고 있다”면서 “많은 기독교 대학들이 등록금 수입의 50% 이상을 대출에 의존하고 있으며, 성 문제를 연방의 학자금 대출의 조건으로 삼는 것은 종교에 기반을 둔 학교에 큰 타격을 줄 것”이라고 경고했다.

김유진 기자

을 통해 바이든을 지지하는 이들이 적어도 우리와 같은 이들과 대화를 나누게 하고 싶었다”고 했다.

마이클 유세프 “극좌 이념, 미 복음주의 교회에도 침투해”

미국 조지아주 애틀랜타에 소재한 ‘아포스톨로스 교회’ 담임인 마이클 유세프(Michael Youssef) 목사가 극좌 이념을 전파하는 소위 ‘깨어난(woke)’ 복음주의 목사들을 강하게 규탄했다.

3000여명의 성도들이 출석하는 교회로 성장시킨 그는 최근 미국 크리스천포스트와 인터뷰를 가졌다.

유세프는 인터뷰에서 1980년대 주요 성공회 교단이 성경적 원칙에서 벗어나, 결국 동성결혼을 찬성하는 투표를 실망스러운 마음으로 지켜봤다고 회고했다.

이어 최근 몇 년간, 좌파 이데올로기를 향해 ‘똑같은 미묘한 굽힘(same subtle bend)’이 복음주의 교회에 서서히 스며들고 있다고 지적했다.

올해 72세인 그는 “내가 주류 교단에서 싸웠던 바로 그 전투가 이제 복음주의 교회를 침략하고 있다”면서 “같은 주장, 같은 용어, 같은 단어들이 매우 정확하게 반복된다는 점에 있어 깊이 염려된다”고 밝혔다.

텔레비전 기독교 사역인 ‘리딩 더웨이(Leading the Way)’ 설립자로서 그는 “인기 있고 육체에 호소할 수 있다는 이유로 ‘깨어난 문화(woke culture)’의 함정에 빠지는 목회자가 늘고 있다”고 진단했다.

유세프는 “깨어난 문화에 굴복하면 문화나 사회로부터 거부를 피할 수 있게 한다. 이것은 현대 많은 복음주의 강단에서 설교되고 있는 매우 대중적인 메시지”라며 “너무 멀리 갔으며, 나는 말 그대로

가끔 눈물을 흘릴 정도로 슬프다”고 심경을 전했다.

이어 “목사로서 나는 모든 비난을 우리에게 돌린다. 왜냐하면 우리는 수백 만 명의 사람으로부터 소셜 미디어에서 ‘좋아요’를 받고, 사랑을 받으며, 팔로어가 되기를 원하기 때문이다. 목사들이 장본인”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성경적 진리에서 벗어나도록 하는 사회적 압력과 관련, “젊은 목회자들은 이것이 숙임수임을 깨달아야 한다. 매우 미묘하고 영리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숙임수”라며 “잠을 잘 수 없을 정도로 하나님이나 마음에 두신 집”이라고 말했다.

한 예로, 교회 내에 비판적 인종 이론(Critical Race Theory)이 인기를 얻고 있는 현상에 대해 그는 “사람들이 매우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는 마르크스주의 이념”이라고 정의했다.

이어 그는 “피억압자와 억압자에 대한 개념은 생각보다 간단하지 않다. 이제 여기 애틀랜타에는 백인 아이들이 흑인 아이들에게 사과하는 사람 기독교 학교들이 들어섰다”면서 “무엇을 위한 사과인가? 그(아이)들은 죄가 없다. 아무 짓도 하지 않았다. 이것은 미친 짓”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아울러, 젊은 목회자들이 성경적 진리를 버리는 표징(sign)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체를 설교하지 않는 것과, 도덕적 상대주의에 대한 굴복, 누군가에게 불쾌감을 줄까봐 주저하는 모습 등을 예로 들었다.

어린이 성경 교육과 관련해 “아



미국 조지아주 애틀랜타에 소재한 ‘아포스톨로스 교회’ 담임 마이클 유세프(Michael Youssef) 목사.

이들은 반드시 사탄이 있다는 것을 알고, 사탄은 하나님과 그의 자녀를 미워하며, 매일매일 그들에 대해 음모를 꾸미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며 “그러므로 그들(목회자)은 사탄과 싸우기 위해 성령과 하나님의 말씀의 권능을 가지고 분발해야 한다”고 권면했다.

이집트계 미국인 목사로서 그는 문화에 굴복하게 하는 압박을 이해한다고 고백했다. 이집트에서 자랄 당시 그는 기독교 신앙이 이슬람 극단주의자들로부터 “심각한 박해”를 받았고, 그 결과 그는 “집에서 신앙을 지키면서 숙지 않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지속적으로 훈련을 받았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그는 “다음 세대에 게 말하고 싶은 것은 ‘이방인과 체류자가 되기를 기대하라’는 것”이라며 “이 땅은 우리의 집이 아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어둠의 일부가 아닌, 어두운 세상의 빛으로 여기에 두셨다”고 강조했다.

김유진 기자

미 개신교인 4명 중 1명 “팬데믹 끝나면 교회에 더 자주 참석 계획”

미국 내 91%의 개신교인들이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 교회로 다시 복귀할 계획이며, 4명 중 1명(23%)은 더 자주 교회에 참석할 계획이라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미국 라이프웨이 연구소(Lifeway Research)에 따르면, 개신교 응답자의 6%는 팬데믹 전보다 참석 빈도가 줄어들 것이라고 답했고, 2%는 거의 참석하지 않을 계획이며, 1%는 교회 출석을 중단할 계획인 것으로 나타났다.

교회에 더 많이 참석할 계획이라고 답한 응답자는 18세에서 29세 사이가 연령대 중에서 가장 많았고, 그 중 43%가 유행병 이후에, 이전보다 더 많이 예배에 참석하겠다고 답했다.

라이프웨이연구소의 스코트 맥코넬(Scott McConnell) 이사는 “1월에 직접 예배를 드린 목회자의 3분의 2가 2020년 1월 참석자의 70% 미만의 참석률을 보였다. 많은 목회자들은 이들이 돌아올 것인지 아닌지를 궁금해 하고 있다”면서 “교회에 안전한 시기를 계획 중”이라고 밝혔다.

이 밖에도, 대유행 때 같은 교회에 출석했다는 응답은 87%, 올해 1월 예배에 참석하지 않았다는 응답은 51%, 2020년 한 번 이상 온라인 예배를 봤다는 응답은 83%로 조사됐다.

이 보고서는 라이프웨이가 올해 2월 5일부터 18일까지 미국 개신교

교인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로 표본오차는 95% 신뢰 수준에 플러스마이너스 3.2%로 나타났다.

전문가들은 코로나 대유행이 미국의 회중들과 영적 습관에 미칠 장기적인 결과에 대해 예상해왔다.

바나그룹(Barna Group) 데이비드 킨나만(David Kinnaman) 대표는 지난해 8월 NPR과의 인터뷰에서 “향후 1년 6개월 안에 5개 교회 중 1개 교회가 영구적으로 폐쇄될 것으로 예상한 바 있지만, 두달, 두달 반 전의 자료에 근거해 오늘날이 같은 가능성은 더욱 높다고 본다”고 전했다.

당시 그는 “다시 문을 연 교회들조차도 훨씬 더 적은 수의 사람들이 나타나는 것을 보고 있다”며 “단순히 교회를 재개한다고 해서 근본적인 경제적 도전들이 해결되는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반면, 종교자유 소송 공익로펌인 베킷(Becket)이 지난해 11월 발표한 ‘종교자유지수(Religious Freedom Index)’ 보고서는 미국의 Z세대가 예상보다 신앙에 더욱 의지한다는 결과에 주목했다.

Z세대 응답자의 74%는 코로나 팬데믹 기간 중에 “신앙이 어느 정도 중요하다”고 답했으며, 이는 모든 세대의 평균(62%)보다 높았다. 또한 Z세대 응답자의 51%는 “신앙이 매우 또는 아주 중요하다”고 응답해 밀레니얼 세대(31%)와 뚜렷한 격차를 보였다.

강연숙 기자



임상우 이민법 변호사
J.D. (법학박사) & LL.M (전문 법학학위/Post Doctorate Degree)
Golden Gate Law School 졸업
미국 이민법 변호사협회 정회원
연방법원 출두 자격소지
Member of AZ Bar & AILA
이민법변호사 경력 2003년 10월부터 현재까지
다음카페 미사모 이민상담 변호사 2007년 3월부터 2013년 8월
미주 중앙 라디오 방송 이민칼럼니스트 2008년 1월부터 2010년 6월
미주복음방송, 미주 중앙 TV, 라디오서울, 라디오 코리아, TVk 중앙일보 웹사이트, YTN 뉴스 라디오 등 이민강연/상담 경력

미국 정착의 지름길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최선을 다해 미국정착을 도와드립니다

이민법 전문 변호사 임상우를 만나십시오

오직 **이민법**만을 취급합니다

투자이민 상담환영

- ▶ 투자비자 및 이민업무
- ▶ 취업비자 및 이민업무
- ▶ 지상사 주재원 비자 및 이민업무
- ▶ 종교비자 및 이민업무
- ▶ 학생비자

- ▶ 가족초청 이민업무
- ▶ 체류기간 연장
- ▶ 시민권 취득
- ▶ 추방 재판
- ▶ 기타 전반 이민업무

www.davidlimlaw.com

임상우
이민전문로펌

213.251.5554

Law Offices of David S. Lim | 3435 Wilshire Blvd., Suite 2550, Los Angeles, CA 90010 / Fax 213.251.8451

바이든 지지한 친생명 복음주의자들 “배신감 느껴”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백악관

미국의 친생명 단체인 '바이든을 위한 친생명 복음주의자들'(Pro-life Evangelicals for Biden)에 소속된 지도자와 학자들이 하이드 수정안 폐지를 지지하는 바이든 대통령에게 실망감을 나타냈다고 미국 크리스천포스트가 지난 9일 보도했다.

바이든 행정부는 최근 대부분의 낙태에 대한 연방정부의 자금 지원을 제한하는 하이드 수정안을 폐지하는 내용의 코로나19 구제안을 지지한다고 선언했다. 이에 복음주의 지도자들과 학자들은 '바이든을 위한 친생명 복음주의자들' 웹사이트에 성명을 게재하고 "바이든 대통령에게 이용당하고 배신당한 느낌이다. 그러나 이러한 시도가 발생하는 것을 옆에서 단순히 지켜보기만 할 생각은 없다"라고 밝혔다.

이들은 또 "많은 복음주의자들과 가톨릭 신자들은 바이든을 공개적으로 지지하기 위해 위협을 감수했다. 바이든 대통령과 민주당원들은 이러한 용기를 존중할 필요가 있다"라며 "우리는 바이든 대통령이 우리에게 한 약속을 존중하고, 구제안에 하이드 수정안을 적용할 것을 즉각 요구하겠다"라고 했다.

이어 "지금은 오랜 낙태 정책을 급진적

으로 바꿀 때가 아니다"라며 의회의 특정 의원들을 향해 코로나19 구제안에 하이드 수정안도 포함시킬 것을 요구했다. 이어 "그렇지 않을 경우, 우리가 여전히 민주당 내에서 환영받을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의문이 제기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성명은 "친생명 복음주의 지도자들로서 우리는 낙태, 특히 하이드 수정안의 문제에 있어서 바이든 대통령이 우리와 같은 이해를 갖고 관여할 것이라 믿고 그의 출마를 공개적으로 지지했다. 바이든 팀은 바이든 팀은 선거운동 기간 우리의 지지를 얻기 위해 대화를 원했고, 우리는 낙태 문제에 대한 적극적 대화와 공동된 해결책을 그 전제로 했다. (그러나) 선거 운동 이후 대화는 없었다"고 지적했다.

이 성명에는 풀러신학교 리차드 마우명예총장, 빌리 그래함 목사의 손녀 제루사 듀포드, 기독교 공동체 개발 협회 존 퍼킨스, 데이비드 블랙 이스턴대학교 총장, 대형교회 목회자인 조엘 C 목사, 노스캐롤라이나 클로드 알렉산더 주교, 고든웰신학교 홀링거 명예총장 등이 동참했다.

이미경 기자

사우스다코타주, 성전환男의 女경기 출전금지법 통과



위 사진은 아래 기사 내용과 무관. ©Pixabay

주지사 "바로 서명할 것... 여성 보호함으로써 여성의 날 기념"

미국 사우스다코타주 상원이 8일 성전환 환자로 확인된 남성 선수들이 여성 운동 경기에 출전할 수 없도록 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고 미국 크리스천포스트(CP)가 보도했다.

이에 따르면, 이 법안(1217호)은 지난 달 하원을 50대 17로, 상원을 20대 15로 통과했다. 다수당인 공화당에서 12명, 민주당에서 3명이 반대표를 던졌다.

사우스다코타주 법은 "여성 팀이나 스포츠는 생물학적 성별을 기준으로 여성들에게만 참가 허용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또 공개적으로 후원을 받는 각 운동팀은 남성, 여성 또는 남녀혼합 스포츠로 지정돼야 한다고 돼 있다. 선수는 팀에 합류하기 전 나이, 생물학적 성별, 그리고 지

난 1년 동안 경기력 향상을 위한 약물을 복용하지 않았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공화당 소속인 크리스티 노엄 주지사는 앞서 자신의 트위터에 "이 법안이 상원을 통과한 직후 서명할 것"이라며 "우리는 이곳 사우스다코타에서 여성 운동 경기를 보호함으로써 국제 여성의 날을 기념한다! 저는 이 법안에 곧 서명하게 되어 기쁘다"고 전했다.

연방 차원에서 성 정체성과 성적 지향에 따른 차별을 불법화하는 평등법이 지난달 미 하원을 통과하고 상원 표결을 앞두고 있다.

평론가들은 이 법안이 더 많은 생물학적 남성들이 여성 전용 경기에 출전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줌으로써 여성들의 기회를 침해한다고 비판했다.

강혜진 기자

교회혁신교회

LA 지역

주일예배 오전 11:00
주일예배 오후 2:00
영혼의심 내적치유 영성집회 오후 7:30(월, 수, 금)

김성식 담임목사

LA백송교회
백합화처럼 순결하고 소나무처럼 늘 푸르른 영혼으로 소생시키는 교회

3251 W. 6th St. Suite B1, LA, CA 90020
T. (213) 674-7966, (213) 245-6616

주일예배 오전 11:00
평일부 예배 오전 11:00
평일부 예배 오후 7:00
금요 말씀과 삶 공부 오후 7:00
토요일예배 오전 9:00

씨니김 담임목사

LA씨티교회
일터교회를 세우는 예수 공동체

4009 Wilshire Blvd. #100B, LA, CA 90010
T. (323) 833-9090

1부예배 오전 8:00
2부예배 오전 9:45 (내세대에 오전 9:30) 새벽예배 오전 5:20(월-금)
3부예배(차세대예배) 오전 11:30 오전 6:20(토)
대학청년부/EM 오후 2:00 수요일(토)오전(수) 오후 7:30

김기섭 담임목사
www.LASarang.com

LA사랑의교회
평신도를 깨우고 21세기 세대를 섬기며, 이방민을 치유하며, 선교를 영감케 하는 교회

2610 W. Olympic Blvd, Los Angeles, CA 90006(Olympic과 Edson 교차)
T. (213) 386-2233

주일1부예배 오전 8:3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수요일(토)오전 오후 7:30
새벽기도회 오전 5:30(월-토)

장태원 담임목사

LA세계선교회
선교를 통해 행복한, 사랑의 공동체

3407 W. 6th St. #412 (6가와 카탈리나), LA, CA 90020
T. (213) 909-6473

Rain down 주일예배 오후 3:30
Heart of David 금요일예배 오후 8:00
Lighter 전도 (매월 마지막주 금요일)

최순환 담임목사

New Church
전도와 양육으로 하나님 나라를 재건하는 큰 교대

1340 E 6th St, #419, LA, CA 90021
T. (310) 905-2228 / newchurchdtda.com

1부예배 오전 9:00 어린이예배 오전 11:00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회 오전 6:00(화-금)
Youth예배 오전 11:00 토요일(합)예배 오전 6:20

한천영 담임목사

갈릴리선교회
가족같은 교회, 가족 이상의 가치

2212 S. Western Ave., Los Angeles, CA 90018
T. (323) 735-6412 / gmcchurch.com

1부예배 오전 8:00 새벽예배 오전 5:30(월-금)
2부예배 오전 10:30 오전 6:00(토)
3부예배 오후 2:00 유초등부 오후 10:30
금요기도회 오후 7:00 중고등부 오후 10:30

강진웅 담임목사

갈보리민음교회
그리스도와 성도와 이웃과

3020 Wilshire Blvd. #160, Los Angeles, CA 90010
T. (213) 365-8880 / F. (213) 365-8802

주일 오후 2:00
수요일예배 오후 7:30
새벽예배(토) 오전 6:30

엘리아 김 담임목사

나눔과 섬김의 교회
세상속에 나아가 나누고 섬기는 교회

264 S. Rampart Blvd. #276, LA, CA 90057
T. (213) 272-6031 (37와 Rampart Blvd 교차로 북동쪽 1블럭)

1부예배 오전 7:30 새벽예배 오전 5:30(월-토)
2부예배 오전 9:30 수/금요일예배 오후 7:30
3부예배 오전 11:45 오전 6:00(토)
4부예배 오후 1:30(영성예배)

진유철 담임목사

나성순복음교회
성령충만함으로 말씀 위에 세운 뜻을 이루아가는 예배공동체

1750 N. Edgemont St., Los Angeles, CA 90027
T. (323) 913-4499 / F. (323) 913-4494

1부예배 오전 9:00 성인 EOM예배 오후 12:30
2부예배 오전 11:00 한어청년예배 오후 12:30
친양예배 주일오후 2:30 새벽예배 화-토 오전 6:00
수요일예배 오후 7:00

박현성 담임목사

나성열린문교회
치유와 표적이 나타나는 교회

1218 S Fairfax Ave, Los Angeles, CA 90019
T. (323) 634-9191 / laopendoor.org

1부예배 오전 8:00 수요일예배 저녁 7:30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예배 오전 5:30(화-금)
유초등부 오전 11:00 6:00(토)
중고등부 EM 오전 11:00

차성구 담임목사

나성제일교회
예수의 온전한 제자 되어 십자가 복을 전하는 생명의 공동체

213 S. Hobart Blvd., LA, CA 90004
T. (213) 388-7101

주일 1부예배(분당) 오전 8:30 주일학교 오전 11:00
주일 2부예배(분당) 오전 11:00 중고등부 예배 오전 11:00
금요찬양예배(분당) 저녁 8:30 새벽기도회(월-금) 오전 5:30
리셋에델린예배(소배방) 오전 11:00

정장수 담임목사

올림픽장로교회
세상을 구원하고 행복을 주는 교회 같은 말, 마음, 꿈, 열매

3020 Wilshire Bl. #160., Los Angeles, CA 90010
T. (213) 387-1700 C. (213) 500-4737 / olympic-church.org

1부예배 오전 8:00 GCEM 오후 1:00
2부예배 오전 10:30 수/금요일예배 오후 7:30
3부예배 오후 1:00 새벽예배 오전 6:00(월-토)
라티노 오후 6:30

신승훈 담임목사

주님의영광교회
말씀대로 믿고, 말씀대로 살고, 섬기고 사랑하는 교회

1801 S. Grand Ave., Los Angeles, CA 90015
T. (213) 749-4500 / F. (213) 749-6700

1부예배 오전 9:00 금요기도회 오후 7:30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회 오전 5:30(화-금) 오전 6:30(토)
중고등부, 유초등부 오전 11:00

이명수 담임목사

청운교회
선교에 흠뻑 소신 초 정신의 흠뻑, 바른교회관의 흠뻑

4465 Melrose Ave., Los Angeles, CA 90029
T. (323) 667-9920

1부 예배 오전 10:30
2부 예배 오후 1:30
성경 공부 오후 3:00
새벽예배 오전 5:30(월-금) 신도모이기 만민부 지역 유일환 환인교회

김경렬 담임목사

산타모니카한인교회
영혼사랑을 실천하는 교회

1520 Pearl St., Santa Monica, CA 90405
T. (310) 502-9999 / www.smkc.us

주일1부예배 오전 8:00 E/M(대,청) 오후 1:3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금요찬양(토) 오후 8:00
한글학교주일 오전 10:00 새벽기도회 오전 5:30(월-금)
유초등부 오전 11:00 오전 6:30(토)
중고등부 오전 11:00

곽부환 담임목사

한마음제자교회
십자가와 부활 위에 선 한마음제자교회

500 Shatto Pl. #410, Los Angeles, CA 90020
T. (213) 321-4433

주일예배 오전 11:00 목요일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회 오전 6:00(화-토)

이순환 담임목사

한샘교회
The Church By the Stream / 은혜의 샘, 생수의 강

1911 Wilshire Bl., LA, CA 90057
T. (213) 505-3838 / yes9389@hotmail.com

1부예배 오전 8:00 금요찬양예배 오후 7:30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예배 오전 5:30(화-토)
수요일예배 오후 7:30

강지원 담임목사

한우리장로교회
말씀과 예배가 살아있고 치유와 회복이 있는 선교와 전도하는 교회

1932 10th Ave., Los Angeles, CA 90018
T. (323) 702-6709

LA 동부, 라스베가스

1부예배 오전 8:00
2부예배 오전 10:00
3부예배 오전 11:45
4부예배 오후 1:30, 금요일예배 오후 8:00
새벽예배(화-금) 오전 5:30, (토) 오전 6:30

고태형 담임목사

ECO선한목자교회
교회여, 성숙하라!

2600 Grand Ave., Chino Hills, CA 91709
T. (909) 591-6500 sunhanchurch.com

1부예배 오전 8:00 수요일예배 오후 8:00
2부예배 오전 10:00 새벽예배 오전 5:30
어린이예배 오전 11:00
중고등부예배 오전 11:00

이희철 담임목사

갯스윌연합교회
여호와를 찾을때

904 E. D St., Ontario, CA 91764
T. (909) 268-4279 / gwachurch.org

주일예배 오전 10:30 새벽기도회(화-금) 오전 5:30
수요일예배 오후 8:00 (토요일) 오전 6:00
주일학교 오전 10:30

김성원 담임목사

남가주새소망교회
예배 성령 선교로 세움 받아 함께 달리는 예수그리스도 공동체

11840 Paramount Blvd., Downey, CA 90241
T. (562) 674-3016, cell. (562) 417-1800
www.newhopechurchcs.org

주일 1부 예배 오전 7:30 중고등부 예배 오전 10:00
주일 2부 예배 오전 10:50 유초등부/유지부 예배 오전 11:00
영아예배 오전 11:00 청년부 예배 오전 10:30
새벽기도회(월-토) 오전 6:00

신용환 담임목사

나성한미교회
부르심에 응답하고 보내심에 반응하는 교회

2727 N. Durfee Ave., El Monte, CA 91732
T. (626) 444-0058

1부예배 오전 7:30 주일학교/중고등부 오전 11:40
2부예배 오전 9:40 대학청년부 오후 2:00
3부예배 오전 11:40 새벽예배 오전 5:20(월-금)
EM(Holy Wave) 오전 10:00 오전 6:30(토)

우영화 담임목사

동부사랑의교회
복음으로 사는 사랑 (월 12:2-3)

5540 Schaefer Ave. Chino, CA 91710
T. (909) 590-3722 www.eastsarang.org

주일 1부예배 오전 9:00 수요일예배 오후 7:3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회 오전 5:30(화-금)
오전 6:00(토)

조용철 담임목사

라스베가스갈보리장로교회

6554 W. Desert Inn Rd., Las Vegas, NV 89146
T. (702) 579-7576

1부예배 오전 7:30 EM 1부예배 오전 9:30
2부예배 오전 9:15 EM 2부예배 오전 11:45
3부예배 오전 11:35 수요일성경예배 오후 7:30
4부 청년예배 오후 1:45 새벽예배 오전(월-금) 6:30(토) 오전 6:00

안 환 담임목사

인랜드교회
예수의 온전한 제자되어 사명을 위하여 사는 교회
1101 Glen Ave., Pomona, CA 91768
T.(909) 622-2324, F.(909) 622-1480 / inlandchurch.org

1부예배 오전 7:45 종교동부 예배 오전 11:45
2부예배 오전 9:45 새벽기도회 오전 5:30(월-금)
3부예배 오전 11:45 오전 6:00(토)

고송희 담임목사

아름다운교회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어가는 교회
1717 S. Otterbein Ave., Rowland Heights, CA 91748
T. (626) 810-3455 / F. (626) 964-5559

1부예배 오전 8:00 수요일예배 오후 7:30
2부예배 오전 11:00 금요일기도회 오후 9:00
창대교회 사랑의 나눔터(매주 토) 오전 10:00-11:00
새벽예배 오전 6:00(월-토)

이훈준 담임목사

창대장로교회
하나님께 영광!
3630 N. "E" St., San Bernardino, CA 92405
T.(951) 966-9191

주일예배 오후 2:00 새벽기도회 오전 5:30(화-금)
수요기도회 오후 7:30 오전 6:30(토)
중국어 성경공부 오후 7:30(화) 汉语圣经班: 周二晚上七点半

조준민 담임목사

치노밸리 아름다운 교회
가정과 교회와 세상을 아름답게 만드는데
5135 Edison ave, suite 13, Chino, CA 91710
T.(714)461-6412

1부예배 오전 8:00 성경공부 오후 7:30(화)
2부예배 오전 11:00 수요일예배 오후 7:30
EM예배 오전 11:00 금요일(아침)예배 오후 8:00
중보기도회 오전 10:30 새벽예배 오전 5:20(화-금) 오전 6:00(토)

송재호 담임목사

할렐루야한인교회
제자된 삶을 실천하여 세상을 변화시키는 사랑의 공동체
19648 Camino De Rosa, Walnut, CA 91789
T. (909) 595-3110 hnsia@hnsia.org

Sunday Service: 2 PM **PASTOR SUNGWON 'SJ' JAHNG**

LA Open Door Community Church
3281 W. 6th St., LA, CA 90020
T. (213) 986-8496 / www.laopendoor.church

벨리, 글렌데일, 파사데나

주일 1부 오전 7:00 JCOCC Academy **김경진 담임목사**
주일 2부 오전 9:00 오전 10:15, 오후 12:40 (교육관)
주일 3부 오전 11:00 EM 오전 11:15 (교육관)
Blended Service
사랑부 오전 8:45 (교육관)

기쁜우리교회
주의 말씀은 내 발에 동아일 내 길에 빛이오니이다
333 E. Colorado St, Glendale, CA 91205
T. (818)662-0400 www.joyfulcc.org

주일 1부 오전 8:00 종교동부 오전 10:30
2부 오전 10:30 한아침년 오후 12:30
EM예배 오후 12:30 수요일예배 오후 7:30
유년부 오전 10:30 새벽기도회 화-토 오전 5:30

이정현 담임목사

만남의교회
거룩한 믿음으로 도약하는 교회
18101 Lassen St. Northridge, CA 91325
T. (818)882-9191 / F. (818)882-9777 www.churchmannam.com

1부 예배 오전 8:00 한글학교 주일 오전 10:00
2부 예배 오전 11:00 금요찬양예배 오후 8:00(금)
종교동부 오전 11:00 Awana 오후 8:00(금)
유년부 오전 11:00 Youth Friday Service 오후 8:00(금)
EM 오후 1:00 새벽예배 오전 5:30(화-금) 오전 6:00(토)

방수민 담임목사

베다니한인교회
문탁없는 교회 변화하는 교회 찬미하는 교회
2401 N. Brighton St., Burbank, CA 91504
T.(818) 845-5431 F. (818) 845-1683 / bkchurch.org

주일 1부 오전 8:00 EM예배 오전 11:30
주일 2부 오전 9:30 사랑의 빛 반 주일 오전 11:30
주일 3부 오전 11:30 금요일성경회 오후 7:45
젊은이예배 오후 2:00 새벽기도회 월-금 오전 5:30

윤대혁 담임목사

사랑의빛선교교회
말씀위에 굳게 서리라
2801 E Colorado Bl., Pasadena, CA 91107
T. (626)744-9191 www.lolmc.org

1부 예배 오전 8:30 EM예배 (1부)오전 9:00
2부 예배 오전 11:00 EM예배 (2부)오전 11:00
금요성경회 오후 7:30 한아침년 주일 오후 1:00
새벽기도회 오전 5:30(월-금) 오전 6:00(토)

오명찬 담임목사

웨스트힐장로교회
예수님처럼 믿는 교회(Believe Like Jesus)
23350 Welby Way, West Hills, CA 91307
T. (818) 884-2391

주일 대예배 오전 11:00
영아예배 오전 10:00
금요일예배 오후 8:00
새벽예배 오전 5:30(월-금) 6:00(토)

곽덕근 담임목사

은혜와평강교회
말씀과 성령으로 날마다 새로워지는 교회
9140 Haskell Ave., North Hills, CA 91343
T. (818) 894-9266

벨리제물 MP제물
주일 1부 예배 오전 8:00 333 S. Garfield Ave., Monterey Park, CA 91754
주일 2부 예배 오전 11:00 교육부 후원예배
금요성경회 오후 7:30 금요찬양예배 오후 8:30 (수요주중예배: 오후 6시)
새벽기도회 오전 5:30 / 토 오전 6:00 종교동부 오전 11시 (금요주중예배: 오후 7:30)
1954 Rhoad St., Northridge, CA 91326 EM: 오후 1:30
(818)9393-6867

최 혁 담임목사

주안에교회
In Christ Community Church
www.in-christcc.org
e-mail: iccc.office1@gmail.com

1부예배 오전 8:00 EM 1부예배 오전 9:30
2부예배 오전 9:40 EM 2부예배 오전 11:30
3부예배 오전 11:30 수요일예배 오후 7:30
교육부 오전 11:30 새벽예배(매일) 오전 5:30

민중기 담임목사

충현선교교회
플러시(Calling), 고치고(Healing), 기르며(Maturing), 맞선다(Confronting)
5005 Edenhurst Ave., Los Angeles, CA 90039
T.(818) 549-9191 / F.(818)549-9199 / choonghyun.org

사우스베이, 토렌스

1부예배 오전 8:00 주일아침 성경공부 10:40
2부예배 오전 11:30 금요일기도회 오후 7:00
3부 EWS 예배 오후 2:00 새벽기도회 오전 6:00(월-토)
유종고등부 예배 오전 8:40

이호민 담임목사

가디나선교교회
예수의 온전한 제자가 되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성령의 공동체
1044 W. 164th St., Gardena, CA 90247
Tel. 310)532-0191

주일 1부예배 오전 8:30 유초등부 오전 11: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종교동부 오전 11:00
EM 예배 오전 11:00 금요일예배 오후 8:00
유치부 오전 11:00 토요일예배 오전 6:00

신태섭 담임목사

가디나 장로교회
예수의 온전한 제자가 되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성령의 공동체
1340 W. Gardena Blvd., Gardena, CA 90247
T.(310)217-9191 www.gpclove.com

1부예배 오전 8:00 수요일예배 오후 7:30
2부예배 오전 11:00 금요일 Bible Study 오후 7:30
금요성경회 오후 7:30 수요일예배 오전 6:00(화-토)
2부예배(EM) 오후 11:00 새벽예배 오전 6:00(월-토)

이석부 담임목사

나성금란교회
기쁨으로 돌아가는 교회 (계 2:5)
3153 W. Marine Ave., Gardena, CA 90249
T.(310) 973-5106 / F. (310) 973-7429

1부예배 오전 8:00 종교예배 오전 11:00
2부예배 오전 9:40 유아/유치부예배 오전 11:00
3부예배 오전 11:00 금요찬양예배 오후 7:30
EM 1부 9:30/2부 11:00 새벽기도회 오전 6:00(월-토)

권영국 담임목사

대흥장로교회
파송가라, 내 백성을 인도하여 내라(출3:9~10)
15411 S. Figueroa St., Gardena, CA 90248
T.(310) 719-2244 / dkpc.org

1부예배 오전 9:00 새벽기도회 오전 5:15 (화-금)
2부예배 오전 11:00 주일학교 유/초등부 오전 11:00
3부예배 오후 1:30 주일학교 중/고등부 오전 10:00
성가대연습 오전 10:20

서보천 담임목사

둘로스교회
영혼 구원하여 제자삼는 교회
1925 Marine Ave., Gardena, CA 90249
T. (310)951-3153

1부예배 오전 8:00 청년부예배 EM 오후 1:30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회 오전 5:30(화-토)

강신권 담임목사

세계성경장로교회
말씀과 함께 세상 속으로
17002 Prairie Ave., Torrance, CA 90504
T. (424) 257-8169 / F. (424)257-8170

1부 예배 오전 8:00 금요일예배 금요일 저녁 7:30
2부 예배 오전 10:45 새벽예배 매일 오전 6:00
EM성인예배 오후 1:00

김경환 담임목사

은혜로교회
새일을 행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라
431 Madrid Ave. Torrance, CA 90501
Tel. 310)787-7766 / www.gwctorrance.com

1부예배 오전 8:30 금요찬양기도회 오후 8:00
2부예배 오전 11:00 수요일예배 오전 10:30
주일학교 오전 11:00 새벽기도회 오전 5:30(월-금)
EM예배 오전 11:00 오전 5:40(토)

이동진 담임목사

성화장로교회
함께 예배드리며, 함께 만나며, 함께 걷는 믿음-사랑-소망 공동체
15801 Brighton Ave., Gardena, CA 90247
T.(310) 515-1191 www.sunghwachurch.org

1부예배 오전 8:00 주일학교 오전 11:00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회(월-토) 오전 5:30
EM예배 오전 10:45 금요성경대림회 금 오후 7:20

박성규 담임목사

주님세운교회
처음 사랑으로 섬기는 교회
17910 Praire Ave, Torrance CA 90504
T. (310) 325-4020 / F. (310) 325-4025

주일예배 오전 11:00
성경공부 훈련 오후 2:00
금요 중보기도회 오후 7:30

이상훈 담임목사

주비전교회
하나님 마음으로 열방을 열자
1626 W. Gardena Blvd. #D, Gardena, CA90247
T. (714) 296-6783 www.sbhvision.org

1부예배 오전 9:00 수요찬양예배 오후 7:30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회 오전 5:30(화-토)
3부예배 오후 2:00

이종용 담임목사

코너스톤교회
이 땅의 참교회, 말씀대로의 교회
24428 S. Vermont Ave., Harbor City, CA 90710
T.(310) 530-4040 / F.(310) 530-8400 / cornerstonetm.com

주일 1부 오전 8:00 수요일예배 오후 7:30
주일 2부 오전 9:30 새벽기도회 월-토 오전 6:00
주일 3부 오전 11:00
EM예배 1부 오전 9:30/2부 오전 11:00

고창현 담임목사

토렌스제일장로교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건강한 교회
1880-1900 Crenshaw Blvd, Torrance, CA 90501
T. (310) 618-2222

말레이시아 법원, 기독교인에 '알라' 단어 허용



말레이시아 국기. ©Unsplash

말레이시아 법원이 수십 년 만에 기독교 출판물에 '알라'라는 단어를 허용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미국 크리스천포스트(CP)에 따르면, 쿠알라룸푸르 고등법원은 10일 정부가 35년 동안 기독교 출판물에 '알라'와 다른 3개의 아랍어 사용을 금지해 온 정책이 헌법에 위배된다는 판결을 내렸다.

이번 사건은 13년 전 정부 관리들이 쿠알라룸푸르 국제공항에서 한 기독교인에게 '알라'라는 단어가 적힌 말레이시아어 종교자료를 압수하면서 시작됐다. 그 후 기독교인 여성인 질 아일랜드 로렌스 빌은 이 정책에 대한 법적 도전을 시작했다.

마침내 쿠알라룸푸르 고등법원이 그녀가 신앙을 이유로 차별을 받지 않을 권리가 있다고 판결하며 그녀의 손을 들어준 것이다.

이전 재판부는 "알라라는 단어는 기독교 신앙에서 필수적인 부분이 아니"라며 "이 단어가 종교집단들 사이에 혼란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알라신은 무슬림들만을 위해 남겨져야 한다"고 판시했었다. 카바(이슬람 메카에서 가장 성스러운 장소), 바이톨라(신의 집), 솔라트(기도) 등 세 단어도 1986년 정부의 지시로 출판물에 사용이 금지됐다.

삼승 불학산 정부 자문위원인 최근현 지매체 CNA와의 인터뷰에서 "법원 판결에 따라 오직 기독교인들을 위한, 십자가 상징이 그려진 기독교 출판물에도 4개의 단어를 사용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그녀의 변호를 맡은 안노우 사비에르

변호사는 "재판부는 기독교인들에게 '알라'라는 단어를 금지한 것은 불법적이고 위험적이라고 판결했다"며 "법원의 판결에 따라 이제 모든 말레이시아인들이 알라라는 말을 사용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사비에르 변호사는 "오늘의 판결은 말레이시아의 비무슬림들에 대한 종교적 권리의 기본적 자유를 굳건히 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말레이시아에서는 '알라' 단어 사용에 대한 논란이 몇 년째 이어지면서 종교 간 긴장이 가중돼 왔다.

말레이시아 인구의 9%를 차지하고 있는 기독교인들은 역사적으로 성경, 기도, 찬양에서 신을 지칭하는 단어로 '알라'를 사용해 왔다. 대부분의 기독교인들이 영어, 타밀어 또는 다른 중국어 방언으로 예배하지만, 일부 말레이어 사용자들에게는 '알라' 외에는 신을 지칭하는 단어가 없다.

그런데 2014년 말레이시아 최고법원은 가톨릭의 한 교회 신문 말레이어판에서 '알라'라는 단어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부인했다.

기독교 박해감시단체인 국제기독교연대(ICC)에 따르면, 이슬람 당국은 최근 몇 년 동안 '알라'라는 단어가 들어간 성경 2만 권 이상을 압수하기도 했다.

오픈도어선교회가 2021년 발표한 기독교 박해국가순위에서 말레이시아는 46위를 기록했다. 말레이시아에서 기독교인은 이슬람에 의해 다양한 형태의 핍박을 받아 왔다.

강혜진 기자

기독교 박해국 90%, 여성 인권 침해 '최악 수준'

국제 오픈도어즈가 최근 '같은 믿음, 다른 박해(Same Faith, Different Persecution) 2021' 보고서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세계박해리스트(World Watch List) 상위 50개 국가를 대상으로 여성에 대한 박해를 강제결혼, 성폭력, 신체적 폭력, 정신적 폭력, 강제적 이혼 등 5가지 부문으로 나눠 2019년 10월 1일부터 2020년 9월 30일까지 진행됐다.

그 결과, 여성에 대한 박해는 2018년 첫 보고서가 발표된 이후 3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으로 증가했다. 특히 지난해 여성의 강제 결혼은 16% 증가했고, 여성에 대한 신체적 폭력은 31% 증가했다.

이들 국가의 여성을 상대로 한 정신적 폭력은 2020년부터 2021년까지 신고 건수가 40%에서 74%로 증가했으며, 강제결혼은 16%, 신체적 폭력은 31% 증가했다. 그 중에서도 강제 결혼을 심각한 문제로 꼽은 기독교 박해 국가는 90%에 달했으며, 성폭력(86%)이 그 뒤를 이었다.

이 보고서의 저자이며 성 박해 전문가인 헬렌 피셔(Helene Fisher)는 크리스천 포스트와의 인터뷰에서 여성에 대한 위협이 증가하는 이유는 기독교 박해 상위 50개국 대부분에서 여성이 권리와 보호가 더 적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피셔는 "그들(여성)은 또한 처벌받지 않을 표적이 될 수 있다. 이것은 기독교인들이 번성하는 것을 원치 않는 인구가 있으면 여성과 소녀를 내쫓을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며 "기독교 박해국가에서 여성은 사회에서 더 취약하며, 기독교 인구를 무력화하는 가장 쉬운 방법"이라고 지적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여성은 기독교 공동체를 표적으로 삼기 위한 희생양이 될 가능성 높으며, 목회자의 딸이 표적이 되는 경우가 많다.

이들 국가에서 여성과 소녀들을 강제로 개종하는 것은 교회의 미래 세대와 가정



박해 받는 기독교인들. 이 사진은 본 기사와 직접적 관련 없음. ©오픈도어선교회

의 발전, 기독교인 자녀 양육을 불안정하게 만들기 위해 주로 사용되는 방법이다.

보고서는 또 종교적 박해의 한 형태로, 아시아와 아프리카에서 여성을 인신 매매하는 행위가 증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기독교 난민이나 실향민들이 이 범 죄에 있어 가장 취약하다.

보고서는 "전세계적으로 17개국(전년도는 10개국)이 여성 및 소녀 인신매매 사건을 보고했다"며 "분쟁에 연루된 국가들은 성폭력과 인신매매 사례를 가장 많이 보고했다"고 밝혔다.

또한, 중동과 북아프리카의 극단주의 단체들은 기독교 여성들을 상대로 강제결혼 및 성 노예를 강요하거나 이슬람교로 강제 개종함으로써 인신 매매를 무기화하고 있다.

피셔에 따르면, 중국은 한 자녀 정책으로 인한 아들 선호 현상으로 인해, 남자가 기를 낳을 여성을 인신 매매하는 웹사이트가 등장하고 있다.

미국무부가 입수한 2020년 '파키스탄 인신매매 개인 프로필'에서 "중매결혼을 위해 여성들을 중국으로 보내기 위해 접점 더 난한 기독교 공동체를 노리고 있다"고 분석했다.

김유진 기자

백송교회, 서울신대 역대 최다 대학원생 배출



이순희 목사맨 앞과 교회 신대원생들. ©백송교회

최근 전국 신학대학원 정원 미달 사태가 벌어진 가운데, 백송교회(담임 이순희 목사)가 서울신학대학교(총장 황덕형 목사) 대학원에 역대 최다 입학(합격)생을 배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신대 대학원에 따르면 2021학년도 1학기 백송교회에서 입학한 신입생은 신학박사 과정(Th.D) 4명, 철학박사(Ph.D) 1명, 신학석사 2명(Th.M), 목회학 석사(M.Div) 과정 2명 등 총 9명이다.

그 중에서도 신학전문대학원 신교학 박사(Th.D) 과정에 들어간 이순희 목사가 화제다. 그는 바쁜 사역 중에서도 신학 석사(Th.M) 과정을 마치고 곧바로 박사 과정에 도전해 합격증을 불태우고 있다.

이 외에 원미현 목사(선교학), 김미리 목사(설교학), 조주옥 전도사(선교학), 배지희 목사(교회사) 등 부교역자 5명도 함께 박사과정에 들어갔다.

이들의 박사과정 학비는 백송교회에서 전액 장학금으로 후원하고 있다. 또 서지영·서민주 전도사가 신학석사(Th.M) 과정에, 김범준(M.Div2)·이명주(M.Div3) 씨가 신학대학원에 새롭게 이름을 올렸다.

백송교회에 소속된 대학원생은 이번만 아니다. 올해 입학한 학생들 외에도 12명이 더 신학대학원에 재학 중이다. 학부 신학과와 평생교육원 신학전공까지 합치면 서울신대에 몸 담고 있는 백송교회 학생 수는 전체 23명에 이른다. 이들 중 절

반은 백송교회에서 전액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다.

황덕형 총장은 “코로나19 사태로 학업에 전념하기 매우 어려운 시기임에도 백송교회에서 미래의 인재 육성에 힘써 주고 있다”며 “앞으로 영성과 지성의 조화를 이루는 일꾼이 되어 성경교회 뿐 아니라 한국교회의 발전을 이끄는 커다란 인재로 나아가길 기원한다”고 당부했다.

백송교회가 이처럼 해마다 서울신대 신학대학원에 많은 학생을 진학시키는 이유는 영성과 지성을 겸비한 제자들을 양성하겠다는 이순희 목사의 남다른 교육열 때문이다.

이 목사는 1년 365일 예배와 치유 사역을 통해 영적 훈련을 하면서도 말씀과 신학에 뿌리를 둔 사역과 목회자를 양성하겠다는 일념으로 신학공부에 매달리고 있다.

이순희 목사는 “백송교회의 비전은 기드온의 300용사와 같은 제자 700명을 양성하는 것”이라며 “이들 제자들과 함께 전 세계에 700개의 성전을 세우고 싶다”며 “꿈을 이루기 위해 백송교회 사역자들은 누구나 할 것 없이 밤낮으로 영성과 지성을 갈고 닦고 있다”고 전했다.

이 목사는 “이번 성과에 그치지 않고, 백송교회 소속 신학생들이 자신의 꿈을 이루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제자가 될 수 있도록 적극 후원하겠다”고 약속했다.

이대웅 기자

명성교회 김하나 목사 직무정지 가처분 기각



명성교회 김하나 목사가 지난 1월 3일 주일예배 강단에 복귀해 설교하던 모습 ©C채널방송 유튜브 영상 캡처

서울동부지방법원이 명성교회 김하나 목사에 대한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10일 기각했다.채권자는 이 교회 원로인 김삼환 목사의 아들인 김 목사가 소위 ‘세습방지방’이라 불리는 교단(예장 통합) 헌법 제2편 제28조 제6항에 어긋나 위임목사 및 당회장 직을 수행하고 있다는 취지로 이 가처분을 신청했다.

교단 헌법의 해당 내용은 “위임목사 또는 담임목사 청빙에 있어, 아래 각호에 해당하는 이는 위임목사 또는 담임목사로 청빙할 수 없다. 단 자립대상교회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이다.

각호는 ①해당 교회에서 사임(사직) 또는 은퇴하는 위임(담임)목사의 배우자 및 직계비속과 그 직계비속의 배우자 ②해당 교회 시무장로의 배우자 및 직계비속과 그 직계비속의 배우자다.

재판부는 우선 “위임목사(김삼환 목사)의 은퇴 후 채무자(김하나 목사)에 대한 위임목사 청빙이 이루어지게 된 과정과 경위, 채무자의 위임목사 청빙을 둘러싼 분쟁의 내용, 총회 재판과 재심 절차 등의 진행 경과, 총회에서 이루어진 승급 의결의 구체적인 내용, 총회의 승급의결에 대한 해석, 이후 채무자의 명성교회 위임목사 부임에 관한 사항을 살펴야 한

다”고 했다.

이어 “종교 내부적인 문제로서의 성격이 강하고, 특히 교단헌법 제2편 제28조 제6항에서 정하고 있는 은퇴하는 위임목사의 직계비속에 관한 청빙 제한 규정의 내용과 취지, 구체적인 해석, 적용 범위, 교단 헌법의 다른 규정들과의 관련성 등은 종교상의 교의 또는 신앙의 해석에 깊이 관련되어 있어, 그 효력 여부에 대한 사법적인 판단은 가급적 자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승급 의결 및 그에 따른 채무자의 명성교회 위임목사 부임 과정에 현저히 정당한 관련에 반하는 정도로 매우 중대한 하자가 있다는 점이 충분히 소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그러므로 결국 채권자의 이 사건 신청은 그 피보전권리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했다.

또 “뿐만 아니라, 명성교회는 2019년 9월 26일 총회의 승급 의결을 통해 장기간에 걸친 분쟁이 마무리되어 다시 정상적인 종교활동을 이어가야 하는 명성교회의 상황을 고려하면, 급박하게 채무자의 직무집행을 정지시켜야 할 보전의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덧붙였다.

김진영 기자

주일1부예배 오전 8:00
주일2부예배 오전 9:45
EM 예배 오전 9:45
주일3부예배 오전 11:30 수요일예배 오후 8:00
KM청년예배 오후 2:00 새벽예배(월-토) 오후 5:30

김우준 담임목사

토레스 조은교회
주님앞에 드러짐으로 오병이(어)의 기적을 경험하는 공동체

19950 Mariner Ave., Torrance, CA 90503
T. (310)370-5500 / www.torrancecgc.org

Sunday Services: 9 AM, 11 AM, and 2 PM
Youth Services: Sundays at 11 AM, Fridays at 7:30 PM
Sunday School: Sundays at 11 AM

PASTORS DAVID LEE & SUNG HONG

Cornerstone Church

24428 S. Vermont Ave, Harbor City, CA 90710
T. (310) 530-4040
www.cornerstonetv.com

O.C., 엘바인 지역

결혼교실, 사모교실, 부부교실, 아버지교실
www.GodFamily.com
www.CMFM.org

김철민 장로

CMF선교회
가정을 세우는 CMF Ministries

13463 1/2 Pumice St., Norwalk, CA 90650
T. (562) 483-0191 / (714) 493-0191

주일예배 오후 12:20
금요찬양예배 오후 8:30
새벽예배(월-금) 오전 5:30

민승기 담임목사

갈보리새생명교회
행복의 시작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111 W. Las Palmas Drive, Fullerton, CA 92635
T. (714)615-9191, 995-5351 john_m9191@yahoo.com

1부예배 오전 7:30 금요찬양 오후 7:30
2부예배 오전 9:30 정애인예배 오전 11:30
3부예배 오전 11:30 영어장년부 오전 9:30, 11:30
한어(한글)찬양예배 오후 2:00 새벽기도회 5:30(월-금)/6:00(토)

구봉주 담임목사

감사한인교회
예수 믿고 변화되어 세상을 축복하는 교회

6959 Knott Ave., Buena Park, CA 90620
T. (714) 521-0991 / F. (714) 521-4636
www.thanksgivingchurch.com

1부예배 오전 8:00 중·고등부예배 오전 11:00
2부예배 오전 11:00 유·초등부예배 오전 11:00
토요일예배 오전 6:00 설기초 예배 매월 4째주 주일 오후 5:30분
대학청년예배 오전 11:00

오병익 담임목사

남가주 벨엘 교회
예수님이 살아계신다고 소문난 교회

1201 S. Beach Blvd., #110 La Habra, CA 90631
T. (562) 524-2037 bethelchurchca@gmail.com

1부예배 오전 8:00 수요일예배 오후 7:30
2부예배 오전 9:30
3부예배 오전 11:20
영어예배(EC) 오전 9:30
청년예배 오후 1:30

백정우 담임목사

남가주동신교회
복음을 복음되게 교회를 교회되게 성도를 성도되게

2505 Yorba Linda Blvd., Fullerton, CA 92831
Tel. (714) 680-9556-7 www.dongshinchurch.com

주일예배 오전 11:00
금요일예배 저녁 8:00
새벽예배 오전 5:30(월-토), 오전 6:00(토)
교회학교 주일 오전 11:00

이 일 담임목사

남가주순복음교회
복수 생으로 활요 삼려 해배공명제 시나 시로 복음의 열매 맺는 복수공명제

10871 Western Ave., Stanton, CA 90680
T. (714) 952-0191 / www.socalcfc.com

주일예배 오전 10:30 새벽기도회(화-금) 오전 5:30
수요찬양예배 오후 8:00 (토요일) 오전 6:00
주일학교 오전 10:30

김성원 담임목사

남가주새소망교회
예배 성령 성령 세움 받아 함께 달려가는 예수그리스도 공동체

11840 Paramount Blvd., Downey, CA 90241
T. (562)674-3016, cell. (562)417-1800
www.newhopechurchla.com

1부예배 오전 9:00 교육부 예배 오전 11:00
2부예배 오전 11:00 유아유치부, 유초등부
수요성령집회 오후 8:00 중·고등부, 대학청년부
한국학교 주일 오후 1:30

왕상윤 담임목사

NEXT 사랑의교회
하나님이 주인인 교회

11 Musick Honor Farm Rd, Irvine, CA 92618
T. (949) 829-0010

주일예배 오전 11:00
수요일예배 오후 7:00
새벽기도회 주일 오전 6:00

최순길 담임목사

LA 임마누엘교회

5621 Beach Blvd. Buena Park, CA 90620
T. (714)743-0141

1부예배(EM) 주일 9:00am 금요찬양예배 8:00pm
2부예배(KM) 주일 11:00am (매월 두번째 금)
교육부예배 주일 11:00am 새벽예배 화-금 5:30am
(유아유치부, 유초등부, 중·고등부) 토 6:00am

안창훈 담임목사

늘푸른선교교회
복음 중심의 선교적 제자공동체

2216 E. South St., Anaheim, CA 92806
T. (714)808-0191 / www.missionways.org
mcc.office.email@gmail.com

주일 1부 예배: 오전 9:45 목요제4예배: 오후 7시
주일 2부 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 오전 6:00(화-금)
유년부예배: 주일 오전 11:00 설모임: 매달 둘째 및 넷째 금요일
중고등부예배: 주일 오전 11:00

안상희 담임목사

남가주늘사랑교회
Everlove Baptist Church of Southern California

1461 W Orangethorpe Ave, Fullerton, CA92833
T. (714) 525-0191 / www.ebsocal.com

주일예배 오전 11:30
금요일예배 오후 8:00
새벽예배 오전 5:30(화-금)

김일권 담임목사

다 감사교회
예수 믿고 변화되어 세상을 축복하는 교회

2000 W. Valencia Dr, Fullerton, CA 92633
T. (714)988-3321, (562)896-1665

1부 예배 오전 8:00 주일학교 오전 11:00
2부 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회 화-토 오전 5:30
수요일예배 오후 7:30
Youth / College 주일 오전 11:00

안성복 담임목사

다우니제일 교회
주를 기쁘시게하는 교회 (고후 5:9)

7948 Quill Dr., Downey, CA 90242
T. (562) 861-1004 www.downeyfirstchurch.org

주일예배 오전 11:30
어린이예배 오전 11:30
찬양예배 오후 7:00(수) 제자훈련 오전 9:30(금)
중보기도 오전 9:00(목) 새벽기도회 오전 6:00(화-토)

림학춘 담임목사

라구나힐스연합감리교회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은혜와 열정의 GnP 300

24442 Moulton Parkway, Laguna Woods, CA 92637
T. (949)380-7777 / www.lagunaumc.org

1부예배 오전 8:45 새벽기도 오전 5:30(월-금)
2부예배 오전 11:00 오전 6:00(토)
중고등부 예배 오전 11:00
EM예배 오전 9:00

이서 담임목사

미주비전교회
역동적인 예배가 살아있는 비전공동체

2536 W. Woodland Dr., Anaheim, CA 92801
T. (714)821-9900,9901 / visioncc.org

1부예배 오전 7:15 성인 영어 예배 오전 9:15, 오전 11:30
2부예배 오전 9:15 일일예배 오후 1:30
3부예배 오전 11:30 주일학교 오전 9:15, 오전 11:30
청년예배 오후 2:00

김한요 담임목사

베델교회
역동적 복음, 능동적 선교

18700 Harvard Ave., Irvine, CA 92612
T. (949) 854-4010 / F. (949) 854-4018

주일 예배 오전 11:00 청년부 오전 11:00
English Ministry 오전 11:30 Hispanic Service 오전 9:30
주일학교/중고등부 오전 11:00 수요 예배 오후 8:00

정기정 담임목사

샘물교회
풍성한 신하심을 누리는 공동체

15151 Cordova Rd, La Mirada, CA 90638
T. (714)749-7770 www.saemool.church

주일예배 1부 오전 7:30 수요일예배 오후 7:00
2부 오전 9:15 중·고등부 오전 9:15, 11:30
3부 오전 11:30 한어부 오전 11:30
4부 오후 2:00 KM대학청년부 오후 2:00

박신용 담임목사

엘바인은누리교회
다음세대를 세우고 복음으로 다가서며 세상을 변화시키는 공동체

17200 Jamboree Rd., Irvine, CA 92614
T. (949)261-9100 / vision.onnuri.org

1부예배 오전 7:30 EM 예배 오전 1:30(청년 영어)
2부예배 오전 9:30 새벽 예배 오전 5:30(월-금)
3부예배 오전 11:30 오전 6:00(토)
4부예배 오후 1:30(청년 영어) 청년부 수요성령기도회 오후 7:30
FAM에 오전 11:30(청년 영어)

이서 담임목사

엘바인 침례 교회
하나님의 꿈이 있는 기쁨의 공동체

5101 Walnut Ave., Irvine, CA 92604
T. (949)857-9425 / www.irvinechurch.com

1부예배 오전 8:00 금요찬양기도회 오후 7:30
2부예배 오전 9:45 (매월 마지막 금요일)
3부찬양 오전 11:30 청년부예배 오후 2:00
수요일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회 오전 5:30(월-토)

남성수 담임목사

오렌지카운티한인교회
평신도 지도자들을 세워 초대교회 역사 이룩하는 교회

14381 Magnolia St., Westminster, CA 92683
T. (714) 893-1652 / kccroc.com

1부예배 오전 07:30 새벽예배 평일 오전 05:30
2부예배 오전 09:20 토요일 오전 06:00
3부예배 오전 11:30 금요성령예배 오후 08:00
4부예배 오후 2:00

한기홍 담임목사

은혜한인교회
행복한 교회 삼급받는교회 세계선교를 마무리짓는 교회

1645 W. Valencia Dr., Fullerton, CA 92833
T. (714) 446-6200 / F. (714) 446-6207

1부예배 오전 7:30
2부예배 (영어) 오전 10:00
3부예배 오후 11:45
토요일새벽기도회 오전 6:00

신원규 담임목사

좋은마을교회

16800 Imperial Hwy, Yorba Linda., CA92886
T. (714)646-9259

주일 예배 오후 1:30
새벽기도회 오전 5:30(월-금)
오전 6:00(토)

박훈 담임목사

함께 걷는교회
하나님, 성도, 이웃과 함께 걷는 교회

6102 Stanton Ave., Buena Park, CA 90621
T. (213)598-9130 breadhoon@hanmail.net

문/사/신/교에 앞장서는 **기독교일보**

광고 및 후원 문의
Tel. 213) 739-0403
E-mail : chdailya@gmail.com



미주크리스천신학대학교(원)

2021학년도 봄학기

신입생 | 편입생모집

실시간 인터넷 소통 화상강의(Zoom)를 통하여,
전세계 어느곳에서나 함께 공부하실수있습니다.

2021년 3월 22일개강

본교 지원시 특전

- 1) RPCA 개혁 장로회 한미연합총회에서 목사안수를 받을 수 있습니다.
- 2) 목회자나 선교사님들, 그의 자녀들에게 장학금 혜택이 있습니다.
- 3) 본교는 미국 신학교 협의회에 가입된 회원학교입니다.
서로 학점 교환이 가능합니다.

2021 봄학기 강의시간표

Day	Time	Class	Professor
Mon	7:30 PM - 9:30 PM	초대교회사	Daniel Min
Tue	7:30 PM - 9:30 PM	데살로니가후서,고린도전서	James Lee
Wed	8:30 PM - 10:30 PM	영성 신학	Elijah Kim
Thu	7:30 PM - 9:30 PM	선교신학2	David Lee
Fri	8:30 PM - 10:30 PM	기독교상담학	Jong Y Kim
Sat	7:30 PM - 9:30 PM	시편	Timothy Song

*청강을 원하시는 분들은 각 과목당 \$100씩으로 청강하실수있습니다.

신학학사과정 (B.Th)

목회학석사과정 (M.Div)

목회학박사,교육학박사,신학박사,철학박사과정 상담가능 (NYTS)

상담전화 | 213-272-6031

미주크리스천신학대학교(원)

CHRISTIAN THEOLOGICAL UNIVERSITY IN AMERICA

276 S. Rampart Blvd. Los Angeles, CA 90057 | TEL:213-272-6031

하나님이 보우하사!



안성복 목사
다우니제일교회

국에서의 삶을 살다보면 조국에 대한 애착이 더합니다. 더구나 타국에서 듣는 '애국가'는 더 가슴을 뛰게 하지요, 애국가 중에서도 "하나님이 보우하사!" 저는 이 부분이 너무나 좋습니다.

현재, 국가나 기관 행사에서 애국가를 부를 때 '하느님이 보우하사'라고 부르고 있지만, 애국가가 처음 만들어질 때, 원래 가사는 '하나님이 보우하사'입니다

1950년 '엘로이즈 R 그린피스'라는 사람이 미국 보스턴의 크리스토퍼 출판사를 통하여 펴낸 '각 국가는 어떻게 작사되었는가?'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 제 1권에 보면 대한민국 애국가에 대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거기에 보면 대한민국 애국가는 윤치호 장로님이 작사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가사는 분명하게 '하나님이 보우하사'로 되어 있습니다.

1905년 발간된 한국 초대교회 찬송가인 '찬미가'에도 동일하게 윤치호 장로님이 쓴 애국가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물론 그 곳에도 '하나님이 보우하사'라고 기록된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그 이후로 하나님을 믿던, 믿지 않던, 수많은 대한민국 사람들이 '하나님이 보우하사 우리나라 만세!'를 불렀으니,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셔서 '하나님이 보우하사' 대한 독립 만세를 외치게 하시고, 100년 전만 해도 세계에서 제일 가난한 나라 가운데 속했던 대한민국이, '하나님이 보우하사' 오늘날 세계 속에 눈부신 경제성장을 이루게 된 것입니다.

모든 생명은 하나님이 보우해 주셔야 합니다. 교회도 하나님이 보우해 주셔야 보전되고 부흥합니다. 나라도 하나님이 보우해 주셔야 해방되고, 보전되고, 성장합니다.

그러기에 언제나 먼저, 하나님의 보우하심을 구하는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보우하시는 성도, 하나님이 보우하시는 가정, 하나님이 보우하시는 대한민국과 미국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얼마 전, 제가 차 사고가 났습니다. 집에서 교회로 향하던 중, 605 프리웨이에서, 제 앞에 앞 차에서 무엇인가(범퍼의 일부분) 떨어졌습니다.

제 바로 앞차는 트럭이라서 차체가 높아서 차 바닥에 조금 부딪히는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제가 탄 차는, 자가용이어서 차체가 낮아, 그것이 차 밑으로 들어가, 차 밑을 심하게 긁었고, 결국 3-4초 만에 프리웨이에서 차가 멈춰 섰습니다.

다행히도 오른쪽 끝 차선에서 달렸고, 뒤에서 오는 차가 없었기에 2차 사고가 나지는 않았습디만, 큰 사고가 날 뻔, 하였습니다.

사고 후 아내와 통화하면서 "당신 괜찮아요?"라는 아내의 질문에 제 입에서 나온 말이 "하나님이 보호해 주셨어요!"였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보호해 주셔서 차만 좀 수리할 뿐, 하나도 다치지 않았습디다. 모든 생명은 하나님이 보호해 주셔야 합니다.

"참새 두 마리가 한 앓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마태복음 10:29)

저는 '애국가'를 참 좋아합니다. '이민자'가 되면 '애국자'가 된다는 말이 있지요. 타

나는 날마다 죽노라



진유철 목사
니성순복음교회

잘 아는 슈바이처박사나 마더 테레사수녀 같은 이들도 사랑을 주었더니 더 많은 사람들로부터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사랑을 받게 되지 않습니까? 반대로 사랑을 받으려고만 하는 사람은 오히려 사람들로부터 진짜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사랑은 받을 수가 없습니다.

세상의 재능과 재물, 칭찬과 축복 등 사람들이 원하는 것들도 다 같은 원리 가운데 있습니다. 자연의 이치에서도 엄마 뱃속에서 처음 세상에 나온 아기는 '오양~'하고 울음을 터뜨리는 동시에 숨을 내쉬면서 생명이 시작됩니다. 반면에 죽는 이는 힘들게 호흡을 들이키며 삶을 마감합니다. 건강을 위한 호흡법 수련도 들이쉬는 것보다 잘 내쉬는 법을 중요하게 배웁니다. 호흡의 수련처럼 영적인 일들도 먼저 내쉬는 것, '주는 것'을 잘하면 놀랄게도 하나님이 들숨, 즉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좋은 것들을 우리에게 주심을 체험하게 됩니다.

인기 배우로서의 안락한 삶에 안주하지 않고 월드비전 친선대사로 지난 10여 년간 소말리아, 인도, 르완다, 방글라데시 등의 빈민촌을 누비며 나눔과 봉사를 실천한 김혜자 권사가 자신의 경험담을 적은 수필집 '꽃으로도 때리지 말라'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나는 슬픔의 유일한 치료제는 나눔이며, 이 사랑의 나눔이야말로 그 어떤 전쟁과 죽음보다 더 강하다는 걸 믿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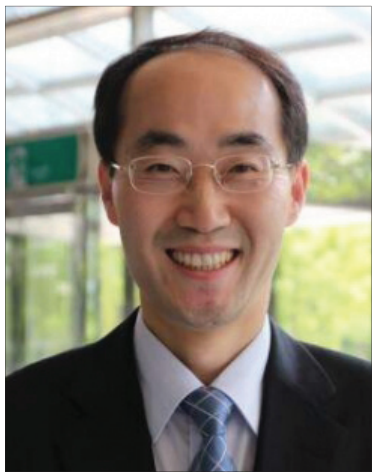
그런데 '주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한두 번 주는 척 흉내를 내거나, 아니면 주고 나서 돌려받을 것만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주는 것'은 예수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야만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자신의 몸을 찢고 피를 흘려 죽으시며 자신의 생명까지도 희생하여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죄성과 욕심을 이기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올해 교회의 표어 '십자가, 하나님의 능력'을 믿음으로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는 삶이라는 것을 확실히 체험되는 은혜가 있기를 기원합니다.

첫 사람 아담과 하와와 범죄와 타락 이후 모든 인간은 불순종과 자기중심적인 죄성의 DNA를 가진 존재로 태어납니다. 착하고 예쁜 아기들에서 가르쳐준 적도 없는 '노'하는 불순종과 '내꺼야!'하는 욕심이 너무나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것을 보며 깜짝 놀라지 않습니까? 세상의 잘나고 똑똑한 사람들의 근사한 구호들도 실상은 자신의 욕심이 감추어진 포장지에 불과할 때가 많습니다. 성경은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딤후3:1,2a)라고 말씀하시며,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는 이기심이 말세의 고통 첫 번째라는 것을 분명히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런 세상에서 예수님은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행20:35)고 친히 말씀 하셨습니다. 물론 '받는 것'을 복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틀린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진짜 영광스럽고 좋은 것을 받기 위해서는 주는 자가 되어야 함을 알아야 합니다. '받는 것'이 표면적인 기쁨을 준다면, '주는 것'은 내면에서부터 넘쳐나는 기쁨을 주고, 그 일로 인해 영광스럽고 좋은 열매들이 풍성히 맺어지게 됩니다.

정성욱 교수의 조직신학 에세이

인간 본성의 4중상태 (The Fourfold State of Human Nature)



덴버신학대학원 정성욱 교수

지난 호에 이어서 조직신학 인간론의 중요 주제들을 목상해 보고자 한다. 지난 호에서는 최초의 인간 (the first human being) 또는 본래의 인간 (original human being) 인 아담의 상태와 장차 우리가 누리게 될 마지막 인간 (the last human beings) 즉 부활인 (resurrected human being)의 상태를 비교해서 논의하였다. 이번 호에서는 지난 호의 논의를 한 차원 진전시켜 인간 본성의 4중상태에 대해서 목상해 보고자 한다.

인간 본성의 4중 상태란 인간이 처음 창조된 이후부터 부활 때까지 거치는 상태를 4단계로 이해하는 교리적 관점이다. 그래서 처음 창조시의 인간을 "원래의 인간" (original human beings) 또는 "무죄 상태" (the state of innocence)로 칭한다. 원래 무죄 상태에 있던 인간이 범죄하여 타락의 상태에 갇히게 된 것을 "타락 상태" (the state of fallenness) 또는 "자연적 인간" (natural human beings)라고 부른다. 이어서 죄인이 회개하고 믿음으로 거듭나고 중생한 상태에 이르렀을 때를 "중생된 인간" (regener-

ated/reborn human beings) 또는 "은혜의 상태" (the state of grace)라고 칭한다. 마지막 주님 재림시 부활하여 영화된 상태의 인간을 "영광의 상태" (the state of glory) 또는 "부활인" (resurrected human beings)이라고 칭한다.

각각의 상태에서 인간이 누리는 특권과 인간이 경험하는 의무, 책임, 비참의 모습은 매우 다양하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

첫째, 원인의 상태 즉 무죄의 상태에 있었던 최초의 인간인 아담과 하와는 선을 택할 수 있는 자유의지를 가진 상태에 있었을 뿐만 아니라 죄악을 선택할 수 있는 자유의지도 지닌 상태였다. 다시 말하면 그들은 죄를 지을 수 있는 (able to sin, posse peccare) 상태에 있을 뿐 아니라, 죄를 짓지 않을 수 있는 (able to not sin, posse non peccare) 상태에 있었다. 또한 그들은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복을 누리고, 하나님과의 행복한 인격적 교제를 누릴 수 있는 특권을 부여 받았다. 동시에 그들은 에덴동산에 세워진 하나님나라의 헌법 즉 선악과 금명을 지키고 순종해야 하는 의무와 책임을 가진 존재였다.

둘째, 아담과 하와는 뱀의 유혹을 받고 그들의 자유의지로 하나님을 반역하여 범죄하고 타락하면서 에덴의 놀라운 복들을 모두 상실하게 되었다. 그들은 하나님나라의 헌법을 어기는 반역죄를 범한 것이다. 그 결과 에덴동산의 살함과 평화와 자유와 기쁨을 상실하게 되었고, 죄인을 생육, 번성케하는 저주에 처하게 되었으며, 에덴동산의 놀라운 풍요로움을 상실하고 그 땅으로부터 쫓겨나게 되었고, 만물에 대한 통치권을 상실하게 되었고, 영적으로 죽어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고, 마

귀의 종과 노예가 되었다.

영적으로 죽어 마귀의 종과 노예가 된 상태에 처한 모든 자연인 즉 타락인들은 그 영혼과 육체를 포함하는 본성 전체가 죄로 부패되고, 오염되고, 타락되었다. 그 결과 선을 택할 수 있는 자유의지를 상실하게 되었다. 다시 말하면 "죄를 범할 수 있는" (able to sin, posse peccare) 상태이면서 동시에 "죄를 범하지 않을 수 없는" (not able to not sin, non posse non peccare)의 상태에 빠지게 된 것이다. "죄를 범하지 않을 수 없는 상태"란 결국 마르틴 루터가 말한 대로 "의지의 속박" (the bondage of the will, servo arbitrio) 상태에 빠지게 된 것이다. 죄의 노예, 불의의 종이 되어서, 자신의 욕망을 따라, 마귀가 이끄는 대로 종노릇 할 수밖에 없는 처참한 상황에 처하게 된 것이다.

셋째, 이런 저주와 비참에서 우리가 구원을 받고 해방되는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의 거룩한 보혈과 절대적인 의만을 신뢰하는 것이다. 죄인이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과 구주로 받아들일 때 그의 영혼은 거듭나고 중생한다. 이 거듭남과 중생의 순간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 새사람, 하나님의 자녀,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 성령의 전으로 영단번의 변화를 경험한다. 이 거듭남과 중생의 순간에 우리의 노예의지는 다시 회복되어 자유를 되찾는다. 그래서 중생인은 "죄를 지을 수 있는" (able to sin, posse peccare) 상태이면서 동시에 "죄를 짓지 않을 수 있는" (able to not sin, posse non peccare) 상태로 회복된다. 다시 말하면 우리의 자유의지와 죄와의 관계에 있어서 우리는 원래 아담의 상태로 회복된

다는 것이다.

하지만 거듭난 중생인의 상태가 아담의 원인 상태와 똑같아지는 것은 아니다. 왜냐하면 타락 전 아담에게는 죄가 없었지만, 우리 중생인들에게는 죄가 여전히 잔존한다. 그리고 우리의 영혼은 거듭나지만, 우리의 몸 안에는 여전히 죄로 인한 저주와 부패성이 잔존한다. 죄에 끌려가는 경향성이 여전히 존재한다. 즉 아담에게는 없었던 죄와 죄성이 우리에게 여전히 잔존하는 것이다.

하지만 한 가지 중요한 다른 점은 아담에게는 성령의 영구적인 내주가 없었다는 사실이다. 반면에 거듭나고 중생한 우리에게 성령의 영구적인 내주가 있다. 물론 아담 안에 성령이 내주했느냐 여부에 대해서는 여전히 신학자들 간에 논쟁이 지속되고 있다. 필자는 중생인에게 성령님이 영구적으로 내주하시는 점에 있어서, 중생인은 아담보다 더 진일보한 차원으로 진입했다고 본다.

물론 중생인은 여전히 잔존하는 죄와 그 죄를 끌려가는 죄 된 본성과 싸워야 하는 상황이다.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은 우리에게 싸워 이길 힘을 주신다. 이 영적 싸움에서 중생인은 때로는 승리를 때로는 패배를 경험하면서 영적으로 자라고 성숙해 간다.

넷째, 놀라운 구원의 삶을 이 땅에서 살다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는 순간 우리 영혼은 영화되어 낙원으로 들어가며 그곳에서 우리 몸의 부활을 기다리게 된다. 주님이 재림하실 때 우리 몸이 부활하게 되는데 그 부활의 상태는 처음 창조된 아담의 상태보다 훨씬 더 영광스러운 상태이다.

부활의 상태, 영광의 상태에서 우

리는 선에 대한 자유의지를 완전히 회복한다. 그 결과 우리는 "죄를 짓지 않을 수 있는" (able to not sin, posse non peccare) 상태로, 더 나아가서 "죄를 지을 수 없는" (unable to sin, non posse peccare) 상태로 진입하게 된다. 다시 말하면 원인 아담과 하와는 범죄하여 타락할 수 있는 상대적 자유만을 누리고 있었지만, 부활 후 우리는 더 이상 죄를 선택할 수 없는, 범 죄할 수 없는 절대적 자유를 누리게 되는 것이다.

더 나아가서 부활한 우리에게 더 이상 죄가 잔존하지 못한다. 죄가 완전히 사라져 버림으로, 우리는 죄의 현존으로부터 완전한 해방을 누리게 된다. 그리고 여전히 죄의 오염과 부패를 가지고 있었던 몸이 부활됨으로 죄의 오염과 부패로부터도 완전한 해방을 누리게 된다. 이렇게 영광스러운 부활인의 상태가 사실상 하나님이 당신의 택한 백성들을 위하여 창세 전부터 예비하신 지복의 상태이다.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영광스러운 상태로 데려가시기 위해서 우리를 창조하시고, 타락을 허용하시고, 마침내 구원하신 것이다. 그러므로 처음 창조시의 아담의 상태도 너무나 놀라운 상태였지만, 타락과 구원을 통과하여 부활한 우리의 상태는 처음 아담의 상태보다 훨씬 더 진보한 상태가 되는 것이다.

우리는 이 진리를 굳게 붙들고, 주님이 약속하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대망하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신실하게 감당하는 주의 자녀, 주의 제자들의 삶을 살아내야 할 것이다. 물론 그것은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의 충만을 받아 주님과 동행함으로써만 가능함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www.chdaily.com
 광고문의 213.739.0403
 E-mail : chdailya@gmail.com

CHRISTIAN BUSINESS

www.chdaily.com
 광고문의 213.739.0403
 E-mail : chdailya@gmail.com

Classified AD

헤밀리자동차 그룹
 www.alexkimtrading.com

대표전화 323.737.5900
 David Kim 213.703.7077

중고차의 황제

출장방문 가능, 일요일도 오픈
 933 S. Western Ave., LA, CA 90006

손바느질 양복의 명가
골드핑거

T-213.386.5858

직접재단/직접재봉/남녀맞춤/명품 옷수선

975 S. Vermont Ave., #102, Los Angeles., CA 90006



Master Tailor
김병호

CD Printing

CD전문 주님미디어입니다.
 교회학교, 부흥회 시디 앨범, 신학교 강의 오디오북
 소장, 대량 모두 제작이 가능합니다.

1,000장 이상 주문시
신년맞이 이벤트
 (프린트CD + CD봉투 + 라벨포함입니다.)

1,000장 \$350
 3,000장 \$950 (디자인Free)



그밖의 다양한 컨텐츠 제작

전도용 물티슈

문의 323.265.0244 www.junimedia.com

Han's piano tuning
 피아노조율

James Han
 Sale Used Piano
 Professional Tuning
 Repair & Moving
 godfist91@gmail.com
 Tel : 562-822-6778



아이넥스 바디샵

자동차 사고...
 더 빠르고 완벽한 복원을 원하신다면
 이제 아이 넥스입니다.

최고의 기술과 완벽함을 추구합니다.



Quality Body Work & Life Time Warranty
 2811 Leeward Ave Los Angeles, CA 90005
 E-Mail : inexcollisioncenter@gmail.com

문의 213.383.1230
 FREE ESTIMATE • TOWING



헤어컷 특강

미용을 배워 선교하는데 사용하실 분들을 위해 특강을 엽니다.

- 대상 : 전도와 선교를 위해 사용하실 분 (현재프로 미용인도 OK)
- 회비 : 월 \$10
- 강사경력 : 전 국가대표 선수권자
- 문의 : 213.392.2323

9가 로데오 갤러리 몰

오페라 하우스 베이커리

교회행사용

CAKE, 빵 주문시 SALE

케익 및 빵 단체주문 환영

T.(213)384-1999 operahousebakery@gmail.com
 833 S. Western Ave., #38, LA, CA 90005



삼성이
 하면
 다릅니다

www.easy2424.com
 한국식 포장이사 가능

귀국·시내·타주이사·차량운송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고객사랑을 실천하겠습니다.

무료 전화 (877)580-2424
 (310)538-3333

18118 S. Broadway St #B., Gardena, CA90248



이제는 안심하자!
치아 고민·걱정 끝!

치아는 하나뿐이니까!
 소중한 내 치아를 위한 '치과 선택 기준'은?
 바른 고집, 정직한 올림픽 치과에서 속 시원히 알려드립니다.



최첨단 3D CT 진단과
 컴퓨터 시스템으로 제작한 임플란트

임플란트 치과 체크 사항은?

- 원장님이 초진부터 수술, 사후관리까지 진료하는가?
- 임플란트 재료는 검증 받은 제품인가, 보증서가 있는가?
- 정확한 진단을 위해, 첨단장비를 보유하고 있는가?
- 경험이 풍부하고, 수준 높은 다양한 수술 사례가 있는가?
- 엄격한 소독과 위생관리가 이루어지고 있는가?



치과의사 이동희
이동희 원장

올림픽 치과 213.385.4011

OLYMPIC DENTAL CENTER 2655 W. Olympic Blvd. #206., LA, CA 90006 (Olympic+Menlo Ave. 뉴 서클 호텔 건너편)

리프팅/ 지방분해
최신장비 도입

★ 리프팅 라인 ★ 부분 지방분해 S라인

[4회 \$999] [8회 \$999]

탈모 치질 갑상선 당뇨

초스피드 다이어트

1달 7~25lbs

손가락 발가락 마디관절

류마티스 관절통증
 퇴행성 관절통증
 손톱 발톱 질환

매끼는 숙면제거약 먹으면서 체중 줄고 몸 전체 부종 빠지는 약

\$50
 한달분



“만성두통, 양쪽 어깨 통증, 뒷목 땡기고 귀울림(이명), 어지럽고 심장이 두근거리고, 가슴이 답답하고, 속이 메스꺼리고, 꿈이 많고 깊은 잠을 못 자고, 한쪽 얼굴이 감각이 없거나 눈과 입 주위에 경련, 손과 팔이 저릿저릿하고 시큰거리는 마비증, 턱관절 장애 T.M.J.”

교통사고 전문병원

- 초강력 경력제
- 원형탈모, 지독한 비듬
- 알러지, 콧물, 코막힘, 눈가려움증, 천식
- 서혜부 통증(사타구니)
- 치아 미백 파우더(3달분 \$60)
- 미용침, 아토피, 각종 피부병
- 수축이 얼음처럼 냉한 분
- 발뒤꿈치 통증, 다리 쥐어움
- 여구리 통증(열통)
- 10일 이상 자궁출혈
- 요실금, 전립선 비대증
- 자궁이 내려앉은 증상

- 치질(항문 문제로 하혈이나 통증)
- 자궁 물혹이나 뿔종(월경통, 하혈)
- 오심, 구토, 좌골 신경통, 요통, 류마티스 관절염
- 안면 신경마비, 중풍, 심근경색, 지독한 어지럼증
- 각종 위장병, 불면증, 햇빛머리, 불안조증, 식은땀
- 갑상선, 당뇨병, 여드름
- 다리가 저리고 뻣고, 무릎통증
- 골다공증, 테니스 엘보우
- 빨간 코, 붉은 얼굴, 머리 속 두드러기
- 자궁 입구 근처에 물혹, 근종 수술 안해도
- 몸 전체 중에 밖으로 나온 혹이나 지방종
- 구연산 캡슐 취급

3대째 가업으로 이어온 한의원
영선한의원
 Young Sun Acupuncture Clinic & Herb

영업시간
 월~금, 10시 ~ 5시
 토 10시 ~ 2시

Tel. 213 380 7800
 LA MEDICAL CENTER 3663 W. 6th St., #308, Los Angeles, CA 90020 (6가와 아드모어)



장재효 목사의 은혜의 샘

구원에 이르는 믿음

히브리서 10:32-39



서울성인교회 목사 장재효

(본문) 32 전날에 너희가 빛을 받은 후에 고난의 큰 싸움에 참은 것을 생각하라 33 혹 비방과 환난으로써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고 혹 이런 형편에 있는 자들로 사귀는 자 되었으니 34 너희가 갇힌 자를 동정하고 너희 산업을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당한 것은 더 낫고 영구한 산업이 있는 줄 알라 35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느니라 36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을 받기 위함이라 37 잠시 잠깐 후면 오실 이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라 38 오직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저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39 우리는 뒤로 물러가 침륜에 빠질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교회는 헬라어로 에클레시아라고 합니다. 이것은 직역하면 그 자리에 그냥 두면 곧 멸망하겠기에 구원을 목적으로 멸망할 자리에서 옮겨놓았다는 말입니다. 즉 여러분들이 죄악 세상에 불의와 죄악에 휩쓸리며 죄악을 먹고 마시는 생활을 계속했다면 여러분들은 곧 멸망할 임박뿐이라서 교회를 통하여 하늘나라 갈 자격을 갖추라고 불러내 주셨다는 뜻입니다.

일단 교회에 왔다는 것은 소망적인 비전을 허락받았다는 입장에서 참으로 감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믿음은 여러 단계를 거쳐서 성장합니다. 성경에서는 거듭나라는 말씀이 절대적으로 강조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3:3에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했습니다. 거듭난다는 것은 인생의 껍질을 벗는 것과 같습니다. 옛사람의 모든 성품적인 것까지 벗어버려야 하는데 그것이 잘 되지 않아 자신의 신앙 성장이 더디게 되고 주변에서 함께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에게 상당히 염려를 끼치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하신 은혜, 하나님의 은혜계약인 구원의 역사, 복음의 진리를 깨달은 그 날부터 믿음은 비로소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 전에 아무리 교회를 오래 다녔다 하더라도 깨달음이 없었다면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 백성된 자격을 인정받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헛된 믿음이라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선적으로 복음의 진리를 깨달아야 하는데, 깨달음의 기준이 문제입니다.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을 전적으로 알아 자신의 형편이 이로 인하여 좋아질 것을 기대하는 마음의 깨달음이라면 그 인생이 그 시간부터 전적으로 하나님 앞에 만가지 기대만 거는 신앙으로 바뀌게 마련입니다. 이것은 이기적이며 자기중심적인 욕심을 위해 하나님을 이용하는 식의 신앙

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모여들고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 중 절반이상이 이런 미신적이고 이기적인 신앙으로 교회를 향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은 봉사라는 것은 뒷전이고 누군가가 자신을 알아주고 반겨주기만을 바랄뿐입니다.

누가복음 17:11이하에서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오시는 예수님이 사마리아 사잇길을 지나오실 때 문둥이 열 명이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소서"했습니다. 예수님은 외치는 그들의 소리를 들으시고 "가서 너희 몸을 제사장에게 보이라"고 하셨습니다. 이것은 그들이 제사장을 찾아가는 동안 그들의 몸을 다 고쳐주신다는 약속이 담긴 말씀이었습니다.

문둥병자들은 사람취급을 못 받는 천형(天刑)환자들이었습니다. 혹 이들이 병이 나았다고 하더라도 반드시 하나님의 공효와 은혜의 능력으로 문둥병 고침 받았다는 증명서를 발급받아 사람들에게 보이고 다니도록 모세의 율법에 정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에게 제사장에게 가서 몸을 보이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가던 도중 그들의 몸이 나은 것을 알았습니다. 열 명이 모두 깨끗함을 받았으나 "그 중에 하나가 자기의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왔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그에게 "일어나 가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하셨습니다. 이것은 저주받은 육신의 문둥병만 고쳐주신 것이 아니라 죄악으로 찌든 영혼까지 하늘의 영생복락의 후사로 구원시켜 주신 것입니다.

어린 아이는 이기적이고 염치도 예절도 부족합니다. 그래서 남을 살피기 보다는 자기 자신을 먼저 생각합니다. 이런 어린아이가 성장하면서 철이 들면 그 부모의 마음도 헤아릴 줄 아는 사람이 됩니다. 이들은 전적으로 자신만을 생각하기 보다는 부모도 생각할 줄 아는 사람이 되어집니다. 그러나, 조금 더 자라면 전적으로 한 가정의 가정으로서의 책임의식이 행동으로 나타납니다. 한 가정을 책임져야하는 사명의식으로 인내하며 희생하면서 살아가게 됩니다. 믿음의 단계도 이와 같습니다.

말씀으로 진리를 깨닫고 회개해서 성령받고 그리스도인이 되어지면 내 안에 새로운 주인인 예수님이 사시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명령에 절대 복종하는 인생으로 살아가야 하는데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셔는 놓고 예수님의 명령에 복종하지 않고 내 인생의 옛 습관을 좇아 못된 생활을 계속하니 예수님이 그 사람의 주인행세를 하실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절대로 무리한 요구를 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첫째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함이고 둘째로는 수고한 사람의 몫으로

유익하게 하시기 위함이라는 것을 믿고 기대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순종하지 못하는 이유는 믿어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순교하겠다고 하지만 어떠한 부담이 자신에게 지워지면 묘한 구실과 핑계를 대며 기피하려는 상황들을 보게 되기도 합니다. 이런 것은 진짜로 믿는 믿음이 아니라는 것을 증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기주의적 철부지 신앙에선 결실을 기대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예수님도 유익하게 하고 자신도 유익하게 하지는 신앙에서는 예수님으로 인한 희생은 절대 기대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믿음은 구원을 보장받을 수 없습니다. 항상 자기 입장이 아닌 주님만을 위하여 그 분의 모든 입장에 서서 그분으로 인한 모든 고통을 기꺼이 감수하고 그 길이 아무리 험하고 어려워도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고자 하는 것이 진짜 믿음입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 제일주의 신앙으로 확증되어질 수 있어야 우리 믿음은 비로소 영원한 구원의 보장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본문은 전날에 너희가 빛을 받은 후에 고난의 큰 싸움에 참은 것을 생각하고 혹 비방과 환난으로써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고 혹 이런 형편에 있는 자들로 사귀는 자 되었으니 너희가 갇힌 자를 동정하고 너희 산업을 빼앗기는 것도 오히려 기뻐하고 감사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는 곧 이 세상의 육신으로 원하는 조건을 위한 믿음이 아니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 되겠고 따라서 영원하고 신령한 내세 소망, 하늘의 확실한 소망을 믿는 믿음으로 증명되는 것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환란과 핍박, 고통, 죽음이 온다 하더라도 모든 기업과 재산을 빼앗기고 명예와 지위

를 빼앗기더라도 하늘의 영원한 조건이 더 나은 조건으로 우리를 위하여 반드시 준비되어지고 있다는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있을 때 우리의 신앙은 더욱 빛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이 악한시대에 이런 믿음을 가지고 주 앞에 서기를 예비해야 할 것입니다.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느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모든 일은 하나님께 의탁하고 그 의탁에 대한 확고한 믿음으로 담대함을 가질 수 있습니다. 이 담대함으로 믿음의 결실을 얻을 수 있습니다.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을 받기 위함이라"는 말씀은 행위로 구원 얻는다는 말씀이 아니고 너희의 믿음이 자기백성으로 인정되어야 구원을 보장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고 구원의 보장을 기대하라는 말입니다.

38절에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저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는 말씀은 신앙이 퇴보한다는 것입니다. 인간 내 입장을 앞세워 예수님을 피하여 관계 맺기를 원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멸망으로 향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뒤로 물러가 침륜에 빠질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가 되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세월이 가면서 우리의 신앙은 성장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성숙해져 가는 우리의 믿음을 확인하실 때 영원한 구원을 보장해 주신다는 확신을 가지고 자신을 주님께 의탁하고 오늘 본문말씀과 같이 담대하게 인내함으로 그리스도 왕국 확장에 헌신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공적을 쌓음으로 영광스러운 결실할 수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성인교회 장재효 목사 TV / RADIO / 신문 / 인터넷 동영상 설교

한국 선교 설교			
TV 한국 방송 설교		한국 신문 설교	
CBS TV	목요일 오후 2시	경북 기독교신문	3면 설교
CTS TV	금요일 오전 6시	기도원 연합신문	3면 설교
해외 선교 설교			
TV 미국 방송 설교		라디오 미국 방송 설교	
COX TV 워싱턴DC	화요일 오후 6시	목요일 낮 12시	AM1540 라디오 코리아 주일 오전 8시 / 동영상 설교 제공
	토요일 오전 7시	주일 오후 10시30분	AM1590 시카고 기독교방송 월요일 오전 11시 20분
CTS TV	수요일 서부 오후 4시30분 / 동부 오후 7시30분	AM1190 LA 미주 복음방송	월요일 오후 5시 / 하와이 현지시간 오후 5시
	토요일 서부 오후 6시 / 동부 오후 9시	AM1310 기쁜소리방송	화요일 오후 7시30분 / 금요일 오후 2시30분
미국 신문 설교			
기독교일보	설교	오프라인 칼럼 설교	FM91.5(SCA) AM1650 LA 미주기독교방송
	인터넷신문 설교	온라인 칼럼 설교	수요일 오후 1시, 오전 2시

지구촌 어디서든 YOU TUBE에서 "장재효 목사" 를 검색하면 동영상 설교들을 선택시청 가능합니다.

提供 국제성은복음선교회

통증탈출 양자칩

양자파동 에너지 칩

- 양자에너지(16번 공정을 거친 토션이라는 제5의 힘, 토션필드 토션장, 회전 전자파, 스핀파)가 30cm이상 방출
- 생체에너지 활성화, 최상의 컨디션 유지.
- 적혈구를 깨끗하게 하여 활동성을 강하게 하고 신속하게 젖산 배출.
- 12경락 365경혈 신속하게 풀어줌.
- 침시술 이상의 효과

▶ **신체 어느 곳이든 통증에 사용합니다.**
천연 자연물질과 양자에너지를 융합시켜 자연 에너지를 방출하는 획기적인 제품으로 팔, 다리, 허리, 어깨, 목 등 통증이 있는 곳에 붙이는 반영구적 칩입니다.

▶ **면역력 강화**
자연 에너지를 인체에서 공명, 흡수함으로써 활발한 기혈순환으로 신진대사가 원활하므로 체온이 약 0.5~1℃ 상승되어 면역력이 강화됩니다.



Z-UP전동거꾸리 LOLC Inc. For the Spirit & Body

양자 깔창

양자 파동 에너지 쿠션 죽초액 발매트

- ▶ **추천인**
당뇨분들의 발보호, 평발인 분, 뒤꿈치 갈라진 분들, 족막염성 통증, 발에 쥐가 자주 나는 분들, 발목, 발바닥, 발등 백색 건선 피부, 족부 혈행 원활, 직립형 활동 직업, 발 관련 질환자, 평안하고 아늑한 보행, 피로를 현격하게 감소
- ▶ **원리**
걸을 때 3배의 하중에 무릎과 허리에 부담을 주는데 제품 착용시 무거운 체중을 골고루 분산시켜 허리, 무릎 부담을 현저히 줄여줍니다.
- ▶ **제품의 특징과 효능 및 효과**
 - 1) 죽초액 : 체중 분산, 구름을 걷는 느낌, 마사지 효과
 - 2) 은 : 향균, 항취 효과
 - 3) 원적외선 방출 분말 : 신체의 모든 부분을 원활하게 함
 - 4) EM 유용 미생물 : 굳은 각질을 제거해서 발을 부드럽게 함.
 - 5) 양자 에너지 처리 : 온 몸에 활력이 넘친다.
 - 6) 제품의 특징 : 신체의 여러 흐름을 빠르게 원활하게 함.



※사용시간만큼 쿠션감은 약해질 수 있으나 미생물 번식, 분해, 원적외선 방출, 양자파동 에너지는 반영구적으로 나옵니다.

Tel. (213)703-0240
147 S. WESTERN AVE., LOS ANGELES, CA 90004 (웨스턴길, 1가와 2가 사이)

박옥주 박사의 **브리콜라주 인 더 무비** 디트리히 본회퍼, 오해와 편견 (11)

디트리히 본회퍼 신학으로 바라본, 최신 디즈니-마블 작품

완다의 삶, 고유성 억지로 만드는 현대 인간상 표본
신앙·윤리 없이 자기 만족 위한 결단 용기로 내세워
인간의 고유성, 하나님과 타인 섬기는 실존의 조건

디즈니-마블의 <완다비전> 속 존재론과 본회퍼의 기독교 철학(2)

◆신학과 실존: <완다비전> 속의 실존적 한계 폭로

근대 계몽주의 시대에 서구 학계에서는 인식, 즉 '앎'이 최고의 가치로 부상했다. 객관적이고 과학적이고 정확한 앎이 인간을 불행과 죄악에서 구원해줄 수 있을 것이라 믿었다.

그러나 아는 것이 늘어도 죄성과 비윤리성을 극복하지 못하는 인류를 보고서, 현대인들은 깨달았다. 결국 주어진 대로 사는 것 외에 삶이란 별 게 없다는 것을 깨닫고 말았다. 진보에 대한 확신도, 인간 이성에 대한 신념도, 결국 삶이라는 한계 내에서는 참 진리가 될 수 없음을 알아챈 것이다.

이러한 깨우침은 현대 현상학과 실존철학의 탄생을 주도하는 원동력으로 작용했다. 하나님의 계시로부터도, 인간의 계몽으로부터도 원하는 답을 찾지 못한 현대 서구 사상가들은 앎을 포기하는 대신 삶 자체를 긍정하고, 무지 속에서도 자신의 결단을 믿고 우직하게 자기 삶 본연의 개별성을 향유하는 고독하면서도 용기있는 인간상을 바라보기 시작했다.

본회퍼는 이런 현실적인, 혹은 체념적 깨달음이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삶의 본모습임을 폭로한다. 그는 하나님 없이 이루어지는 무신론적이고 실존론적인 결단 행위가 궁극적으로는 독단적이고 유아적(唯我的)인 삶의 향유를 위한 자기폐쇄로 이어질 것이라 경고한다.

디즈니-마블의 TV 시리즈 <완다비전>은 이렇듯 하나님 없이 사는 인간이 그 스스로를 자기가 처한 세계의 유한한 주(主)로 응립하고서,

불행과 고난, 죄성과 불안전함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개별성과 고유성에 만족하며 용기있게 자기의 삶을 기투(企投)하는 가련한 자유자의 모습을 그려내고 있다.

물론 <완다비전> 속 완다는 알려지지 않은 빌런에 의해 조종당하고 있는 것으로 나온다. 하지만 그렇게 마리오네트 인형처럼 조종당하는 처지를 뿌리치지 못하는 이유는 부분적으로 완다가 자기 삶의 실재를 들여다보려 하지 않기 때문이기도 하다.

완다는 무지 속에서 그저 자기가 바라는 바, 의미있게 여기는 바를 추구하며 사는 데 만족하고 있다. 시리즈의 남은 서사가 어찌될지 아직은 알 수 없지만, 분명한 사실은 완다가 추구하는 삶의 모습은 본회퍼가 경고했던 유아적인 삶의 모습을 그대로 따라가고 있다는 점이다.

◆신학과 실재: 진정한 고유성은 신앙의 윤리를 위한 고유성

본회퍼에게 있어서 이 세상에 유일하게 계시된 삶의 실재 혹은 실상이란, 온전한 인격이라는 것이 오로지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만 성립될 수 있다는 것이었다. 본회퍼가 보기에는 아는 것이 많다고 해서 혹은 삶을 주도적으로 이끌어가는 용기가 넘친다고 해서, 온전한 인격이 되는 것이 아니었다.

오히려 온전한 인격은 자기 앎의 한계 및 자기 존재의 한계를 절감하고서, 초월자이신 하나님 앞에 겸비하고 순복하는 인격이다. 이러한 신앙이 없이 인간 인격은 커다란 결함을 가진 인격, 그 가능성을 개화하지 못하는 미숙한 인격으로 남을 뿐이다.

그리고 본회퍼는 이런 온전한 인



디즈니-마블의 TV 시리즈 <완다비전>.

격을 만들어주는 계기가 타인과의 윤리적 관계뿐임을 역설했다. 우리 삶의 현장에서 만나는 타인과의 관계에서, 자아의 인식에 대한 타자의 초월성을 존중하고 타자성을 보존하며 수긍하는 실천만이 한 사람은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만들어준다고 확신했다.

이러한 맥락에서 그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대한 믿음보다 개인의 윤리적 결단과 실천이 더 중요하다고 강변했다. 이는 그가 복음의 중요성을 아예 무시했기 때문이라기보다, 진정 복음적인 믿음을 가진 이들은 윤리적 결단과 실천 면에서도 온전해야 한다는 믿음 때문이었을 것이다.

그러하기에 본회퍼가 인간의 삶 속에서 유일하게 긍정적으로 바라봤던 실존론적 결단은 기독교 신앙에 바탕을 둔 윤리적 결단이었다.

인간이 피투(披投)된 실존적 정황 속에서, 무지와 죄성과 무능력에 몸부림치면서 결단해야 할 것은 자기 삶의 고유성을 붙드는 일이나 타자의 고유성을 존중하는 일이다.

거짓됨과 참됨에 관계없이, 자기를 초월해 있는 현실에 관계없이 그저 자기 능력이 닿는 한에서 자

기 세계를 마음껏 만들어가는 <완다비전> 속 완다의 삶은, 자기 삶의 고유성을 억지로 만들어가는 현대적 인간상의 한 표본이라고 볼 수 있다.

신앙도 윤리도 없이 자기 만족을 위한 결단을 삶의 용기로 내세우고, 이러한 행태를 윤리적이라고 포장하는 것이 오늘날 개별화된 삶을 드높이는 시대정신의 실상이다.

자극심이 기반이 되는 삶의 개별화는 본회퍼의 관점으로 볼 때 무신론적이고 실존론적인 결단으로 분류된다. 이는 바로 오늘날 우리 한국인들이 정치적으로나 사회적으로 줄기차게 추구하는 바이기도 하다.

민족적 고유성을 미화하고, 사상적 주제성과 자주성을 신격화하며, 초월적인 것의 존재를 수긍하기를 거부하고, 자기를 겸손히 돌아보는 자세를 망각하도록 부추기는 것이 오늘날 우리 사회의 자화상이라 할 수 있다.

잘한 것은 침소봉대하고, 잘못된 것은 기를 쓰고 은폐하며 자긍심을 자기 고유성과 등가로 취급하는 태도 가운데서는 어떠한 반성과 회심도 찾아보기 어렵다. 'K-방역', 'K-Culture' 같은 실체없는 용어들을 유행시키면서, 사회에 만연한 부조리와 고통을 은폐하기에 급급한 것이 현재 우리 사회를 둘러싸고 있는 정치적·문화적 분위기이다.

본회퍼의 신학은 인간의 고유성이 자긍심과 자기 만족을 위한 실존적 본질이 아니라, 하나님과 타인을 섬기기 위한 실존의 근본 조건임을 우리에게 가르쳐준다.

인간이 고유하면 고유할수록, 그는 더욱더 자기 죄성을 깨닫고, 자신에게 고유하게 부여된 신앙의 책임, 하나님과 타인에 대한 기독교적 책임을 깨닫는다.

이러한 본회퍼 신학의 관점으로 바라볼 때, <완다비전>은 인간의 유아적인 결단행위와 몰(沒)윤리적인 고유성, 개별화 이념의 비실재성을 보여주는 비판적 알레고리로 읽혀질 수 있다.

작품 속 완다의 삶의 모습을 단 한 마디 말로 정확하게 표현한 말이 있다. '정저지와(井底之蛙)', 우물 안

개구리이다. 그리고 이는 실상 오늘날 한국인들이 세속의 조류에 밀려 맹목적으로 추구하고 환영하는 삶의 모습이기도 하다. <계속>

◆박옥주 박사(연세대 연합신학대학원 겸임교수)

연세대학교에서 신학을 전공했으며, 동 대학원에서 조직신학 석사 학위(Th.M.)와 종교철학 박사 학위(Ph.D.)를, 침례신학대학교에서 목회신학 박사(교회사) 학위(Th.D.)를 받았다. 현재 서울에서 목회자로 섬기는 가운데 연세대 연합신학대학원 겸임교수로 재직하고 있으며, 기독교와 문화의 관계를 신학사 및 철학사의 맥락 안에서 조명하는 강의를 하는 중이다.

필자는 오늘날 포스트모던 문화가 일상이 된 현실에서 교회가 보존해온 복음의 역사적 유산들을 현실적 삶의 경험 속에서 현상학과 해석학의 관점으로 재평가하고, 이로부터 적실한 기독교적 존재 이해를 획득하려는 연구에 전념하고 있다.

최근 집필한 논문으로는 '종교경험의 가능근거인 표상을 향한 정향성(Conversio ad Phantasma) 연구', '상상력, 다의성, 그리스도교 신앙', '선형적 상상력과 그리스도교 신앙', '그리스도교적 삶의 경험과 케리그마에 대한 후설-하이데거의 현상학적 이해방법' 등이 있다.

브리콜라주 인 더 무비(Bricolage in the Movie)란

브리콜라주(bricolage)란 프랑스어로 '여러가지 일에 손대기'라는 의미를 갖고 있다. 이 용어는 특정한 예술기법을 가리키는 용어로 자주 사용된다.

브리콜라주 기법의 쉬운 예를 들어보자. 내가 중·고등학교에 다니던 학창시절에는 두꺼운 골판지로 필통을 직접 만든 뒤, 그 위에 각자의 관심사를 이루는 온갖 조각 사진들(날렵한 스포츠카, 미인 여배우, 스타 스포츠 선수 등)을 덧붙여 사용하는 유행이 있었다. 1990년대에 학창시절을 보냈다면 쉽게 공감할 것이다.



자기 만족 가운데서 마리오네트 인형처럼 조종당하는 완다의 모습은 본회퍼가 경고했던 유아적인 삶의 모습을 보여주는 듯하다.



<완다비전> 속에서 완다의 거짓으로 채워진 삶은 자기 삶의 고유성을 자의적으로 만들어가는 현대인의 삶의 모습을 떠올리게 한다.



완다의 연출로 만들어진 웨스트뷰의 일상은 인간의 유아적 결단행위와 몰윤리성으로 점철된 현대인들의 우물 안 개구리 같은 삶의 실상에 대한 비판적 알레고리로 읽혀질 수 있다.

아트설교연구원 인문학 서평 **마침 인생? 맞춤 인생!**

삶의 의미 재해석: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에 동참하는 것

**사랑은 마침이 아니라 맞춤, 끝내기 아닌 이어가기
사람들에게 잘 맞는 브랜드 만들려면, 의미가 중요
전달하는 스토리텔링 넘어, 실천하는 '스토리두잉'**

성경은 원수를 사랑하라고 말한다. 원수는 사랑할 수 없는 존재다. 원수는 나랑 맞는 것이 하나도 없다. 나랑 맞지 않는 사람은 원수가 된다. 자녀도 가족도 원수가 될 수 있다. 모든 것이 보기 싫다. 원수랑은 끝내는 것이 마땅하다. 그러나 사랑은 마침이 아니라 맞춤이다. 끝내기가 아니라 이어가기다. 사랑은 다른 성격도 맞춰가는 것이다. 마침은 자기중심이다. 맞춤은 상대방 중심이다. 마침은 쉽고 간단하다. 맞춤은 어렵고 오래간다. 진실한 관계는 마침이 아니라 맞춤에서 발생한다.

어떻게 하면 맞춤 인생으로 살 수 있을까? <의미의 발견>은 기업이 어떤 방법으로 고객에게 맞춰가는지를 이야기한다. 저자 최장순은 삼성전자, 현대자동차, 인천공항, 이마트 등의 브랜딩 전략을 맡은 최고의 크리에이티브 디렉터다.

요즘 기업들은 고객들과 진실한 관계를 맺으려고 한다. 고객의 작은 부분까지 맞추려고 한다. 그 맞춤의 노력으로 탄생한 것이 브랜드다. 저자는 사람들에게 잘 맞출 수 있는 브랜드를 만들기 위해서는 의미가 중요하다고 말한다.

“기업이 기능적 경쟁이나 표면적 유행에 휩쓸리지 않고 자기다움을 구축하려면, 눈에 보이지 않지만 지속적으로 추구해야 할 숨은 의미를 발견해야 한다. 그리고 그것을 구체화해 가는 실천 행위가 필요하다.”

스토리를 전달하면 ‘스토리텔링’이 되지만, 실천하면 ‘스토리두잉(Story Doing)’이 된다. 스토리두잉이 있어야 스토리는 공유되고, 이 과정이 지속되면 기업의 실천은 일회성 이벤트가 아니라, 기업의 DNA로 뿌리내린다.

특별한 관계는 말로만 만들어지지 않는다. 크건 작건 경험할 수 있는 액션 프로그램이 지속돼야 스토리는 사실이 된다고 저자는 말한다.

맥도날드의 ‘스토리두잉’은 뛰어나다. 맥도날드는 브랜드의 의미를 가족에서 찾는다. ‘가족’은 맥도날드가 공동체를 대하는 본질적 태도이자 철학이다.

1992년 LA에서는 폭동이 발생한

다. 폭동으로 인해 남부 중앙 LA가 황폐해지고 모든 것이 파괴됐다. 그 중 눈에 띄는 건물이 있었다. 모든 것이 파괴됐지만, 멀쩡하게 살아남은 맥도날드 건물이었다. 사회학자들은 폭동을 일으켰던 사람들과 인터뷰를 했다.

“왜 맥도날드 건물만 살아남았나요?”

“그들은 우리 편이니까요(They are one of us.)”

“그게 무슨 말인가요?”

“그들은 우리를 돌봤거든요.”

맥도날드는 저소득층이 사는 지역에 농구장을 설치해 주고, 수년간 수백 잔의 무료 커피를 흑인 노동자들에게 나눠주고 있었다. 당시 LA 지역 사람들에게 맥도날드라는 브랜드는 자본주의의 상징이기 이전에, 자신들을 돌보는 친구이자 가족이었던 것이다.

맞춤은 나만을 주장하는 것이 아닌 상대방의 입장이 되어가는 것이다. 좋은 브랜드는 자신이 원하는 물건을 만들어 파는 것이 아닌 상대방의 필요를 채워주는 것에서 시작된다.

미국의 소셜 뉴스 사이트 ‘레딧(Reddit)’에 질문이 올라왔다.

“사람들은 스타벅스에 왜 가?”

여러 답변들이 달리기 시작했다. 이유는 다양했다. 하지만 몇 가지 패턴이 있었다.

1) 즐거움이 있다. 기분 전환이 된다.

2) 사회경제적 신분이 상승한 기분을 준다.

3) 탁월하고 전문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4) 접근성과 편의성 등 실용적 이유에서 간다.

스타벅스에 가는 사람들의 이유는 다양할 것이다. 그러나 핵심은 각자의 필요를 채워주고 있다는 것이다. 사람들이 스타벅스에 매력을 느끼는 이유는 자신에게 맞춰주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사랑은 상대방에게 맞춰가는 것이다. 믿음도 그렇다. 하나님은 맞춤을 원하신다. 그분은 우리와 관계를 마치지 않으시고 우리에게 맞춰 주셨다. 최고의 사랑은 마치는 것이 아니라 맞춰주는 것이다. 예수님이 그랬듯 우리도 마침이 아니라 맞춤 인생이 되어야 한다.

맞춤 인생이 되기 위해서는 의미를 발견해야 한다. 무작정 맞춰가는 삶이 아닌 왜 그래야 하는지 의미를 재정의하는 것이다.

1966년 런던, 어느 일요일의 한 밤. 토마스 패러리의 베이커리에서 원인 모를 화재가 발생했다. 불은 삼시간에 런던 시내로 퍼졌다. 당시 화재 진압 기술로는 단숨에 불을 끄기 어려웠는지, 화재는 무려 나흘간 지속됐다.

그 화재는 ‘폭풍처럼 번지는 불(firestorm)’이라 기록됐다. 전 세계 3대 화재 중 하나로 기록될 정도로 엄청난 화재였다. 이 불로 인해 세인트폴 대성당을 포함해 교회 87채와 주택 1만 3,200여 채가 소실됐다. 런던 전체 건물의 80%에 해당하는 셈이어서, 사실상 모든 주택이 전소된 재앙이었다.

왕립재건위원회는 도시 복구를 시작했다. 그중 전소된 대성당의 복구를 크리스토퍼 렌(Sir Christopher Wren)에게 맡겼다.

그는 당대 최고의 과학자였는데, 1663년 갑자기 건축으로 방향을 바꾸어 걸출한 건축가가 된 인물이었다. 그는 세인트폴 대성당을 바로크 양식으로 재탄생시켰다.

어느 날 그가 대성당 공사장에 갔다. “뭐 하고 계십니까?” 어느 석공에게 다가가 물었다.

“돌을 자르고 있습니다.” 석공이 답했다.

렌은 다른 석공에게 다가가 똑같이 질문했다. “뭐 하십니까?”

“하루에 5실링 2펜스를 벌고 있습니다.” 두 번째 석공의 답이었다.

렌은 세 번째 석공에게 같은 질문을 던졌다. “뭐 하십니까?”

“저는 크리스토퍼 렌을 도와 아름다운 성당을 짓고 있습니다.” 세 번째 석공이 답했다. 세 번째 석공은 앞의 두 사람과 달리 의미를 새롭게 해석하고 있었다.

진정한 맞춤은 하기 싫은 일을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에 동참하는 것이다. 이것이 의미의 재해석이다. 원수를 사랑하라는 말의 의미를 다시 생각할 길 바란다.

믿음의 삶은 그리 멀리 있지 않다. 지금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사랑하는 일부터 시작하면 된다. 우리 모두 마침 인생이 아니라 맞춤 인생이 되길 바란다.

김현수 목사
행복한나무교회 담임
출처:아트설교연구원



의미의 발견
최장순
틈새책방 | 320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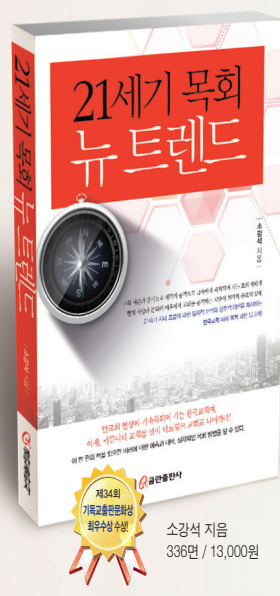
**물건의 흥수 속에서
왜 '의미'에
집중하는가?
브랜드의 의미를
찾아 파는
최장순만의 비법**

미국의 부동산 중개인들은 종종 집을 살 것 같은 고객이 오면 집주인이 빵을 미리 구워놓으라고 주문한다. 미국인에게 빵 냄새는 '가족적 가치'를 불러일으킨다. 빵 냄새가 가득한 집에 들어오면 좀 더 '집 같은 집'으로 인식되고 정서적으로 선호도가 높아진다. 결과적으로 부동산 중개인들은 '빵 냄새'를 통해 '집'을 판매하는 게 아니라 '가족애'를 판매한 것이다.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합동, 통합)

부총회장 당선 “한국교회 발전을 위해 크게 쓰임받길 기도합니다.”



21세기 목회 뉴 트렌드

교회 내분과 반기독교 세력의 공격으로 급속하게 파괴되어가는 교회 생태계 현대 사상과 문화의 배후에서 교회를 공격하는

사탄의 전략과 음모의 실체

21세기 시대 흐름에 대한 입체적 분석과 창조적 대안을 제시하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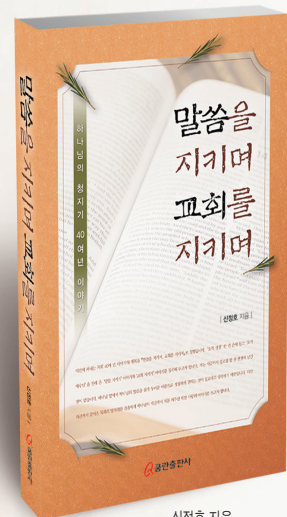
한국교회 미래 목회 대안 보고서!

탈교회 현상이 가속화 되어가는 한국교회에, 이제, 커뮤니티 교회를 넘어 네트워크 교회로 나아가라!
이 한 권의 책을 읽으면 미래에 대한 목회 예측과 대안, 실제적인 목회 방법을 알 수 있다.

소강석 목사



소강석 저음
336면 / 13,000원



말씀을 지키며, 교회를 지키며

- 하나님의 청지기 40여 년 이야기 -

“말씀을 지키며 교회를 지키는 청지기 사상은

‘말씀대로 살면서 말씀을 전파할 뿐만 아니라 말씀을 지킴으로써 오는 고난도 각오해야 한다’는 의미와 ‘주님의 몸 된 교회를 위해 헌신하며 부지런히 전도할 뿐만 아니라 음부의 권세로부터 교회를 지켜야 한다’는 이중적인 의미가 있다.

‘거룩한 교회, 다시 세상 속으로’ 들어가기 위해 노력해온 전주동신교회와 신정호 목사의 이야기다. 교회 개척을 꿈꾸는 신학생, 목회자, 성도들에게 일독을 권한다.

신정호 목사



신정호 저음
380면 / 15,000원

미주복음방송 개국 30주년

은혜로
빛으로

30년

with Grace into Light



3월 11일(목), 10am

실시간라디오 및 유튜브채널 생방송!
GBC 개국 30주년 감사예배
장소 : 은혜한인교회

4월 22일(목), 9am

나눔On 캠페인 특별 생방송

7월 17일(토), 7pm

팬데믹을 넘어 커뮤니티 회복을 위한 콘서트
'This is Korea!'
장소 : Walt Disney Concert Hall

5월 3일(월)
~ 9월 30일(목)

5월부터 참가 영상 접수! 9월 시상!
제 10회 GBC 복음성가 경연대회

10월 29일(금)
~ 31일(주일), 7pm

2021 CCM 찬양제

